평신도

Vol. 40 SUMMER 2013

여름의 생각

'내가 바로 교회'라는 긍지의 마음가짐

특집 | 피정

연중기획 | 시복시성 운동(2)

시복 · 시성을 위한 기도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

영성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었던 길

신앙의 해 | 특집

신앙에 물주기 – 기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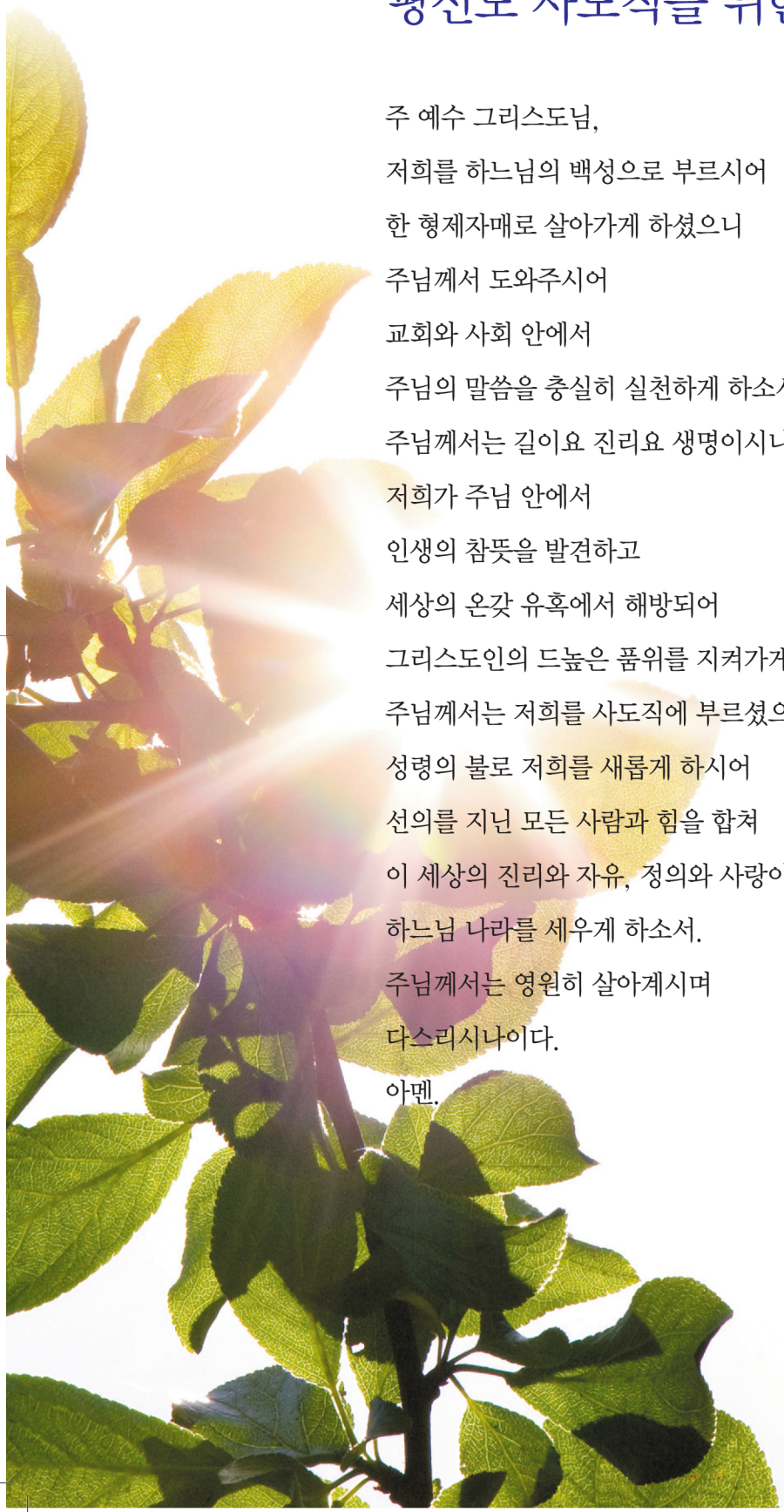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3.7.10 10:54 AM ˜□□□`□1 G4^□•´ PS_IN 2750DPI 300LPI T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뜻을 발견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인의 드높은 품위를 지켜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도직에 부르셨으니
성령의 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힘을 합쳐
이 세상의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평신도내지 1904.6.302:54AM 페이지1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Contents

생각THINKING
02. '내가 바로 교회'라는 긍지의 마음가짐/최홍준

특집SPECIAL
04. 장익 요한 주교 인터뷰/배봉한
07. 피정 특집
08. 피정, 영혼의 휴식/이지연
12. '쉰다는 행위'의 정체는?/정도언
14. 피정하며 읽을 만한 책/김선동
17 쉼, 비움의 또 다른 얼굴/조경자

지금HOT & NOW
18. 열린 세계로 이끌어준 삶/김후남
20 한국가톨릭약사회의 어제와 오늘/이강추
22. 시복시성운동(2)
시복 · 시성을 위한 기도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양두석
25. 시 · 여름밤/이준관
26. 제7회 우리 성가 작곡 공모 시상식/신동수
28. 신앙의 해 특집 – 신앙에 물주기
기도 편/손희송

영성SPRITUALITY
31. 지금 SNS에서는 … /유영훈
33.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었던 길/최동준
36. 가난한 이를 선물로 여긴 선우경식의 영성/박문수
38. 신앙 선조들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천원주

생명·평화LIFE & PEACE
40. 탈핵(탈원전)을 위해 행동합시다/하승수
42. 한반도 평화와 교류협력/임을출
44 2013 DMZ 평화의 길/이지연
45 평화를 구하는 기도

문화CULTURE
46. 권용준 교수의 성화이야기
존 에버렛 밀레이–부모집에 있는 그리스도
48. 기도로 걷는 길(2)–파티마 성모 발현지/류정호
51 하느님이 주신 달란트/김상아
52. 가톨릭특강
숫자 '0' · 비움과 충만/명백훈
54 아가다의 음악편지
한 마음 한 목소리/양인용

소식NEWS
56. 교구평협 & 회원단체
7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석규
73. 공지사항



*평신도-내지 1904.6.302:54AM 페이지2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내가 바로 교회'라는 긍지의 마음가짐



최홍준 회장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세계 어느 곳을 여행하든 하나인 믿음 안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고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난 6월 2일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에 로마시간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교황님과 함께 바친 성체조배 예식에 저도 아내와 나란히 앉아 동참함으로써 가슴 뿌듯한 긍지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성베드로 대성전이 아닌 서울의 우리 본당에서였지만, 밤 11시 30분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주임신부님과 함께 바치고 12시부터 진행된 성체조배와 성체강복을 통해 '나도 보편교회의 일원'이며 '내가 곧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도 교회다, 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비오 12세 교황님이 1946년 2월 20일, 신임 추기경들에게 한 연설의 한 대목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899항에 인용하고 있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9항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평신도들은 교회 생활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는 사회의 활력소와 원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곧 공동체의 으뜸인 교황과 주교들의 인도를 받는 지상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언제나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신앙의 해'를 살면서 평일미사 끝에 '가톨릭교회교리서'를 10분가량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제3장 성령을 믿나이다' 가운데 '평신도'에 관한 항목을 읽었는데, 깨우침이 컸습니다. 평소에 잘 안다고 여긴 부분이었지만, 새로운 인식을 안겨준 대목이었습니다. 평신도의 삼중직무 가운데 '사제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생활이 고달프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며 미사에 나아갔던 것인데, 내 삶의 힘든 부분도 사제의 직분으로 하느님께 바쳐드린다면 이것이 평신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교리서' 제901항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성령으로 도유된 사람들로서 놀랍게도 언제나 그들 안에서 성령의 더욱 풍부한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 그들의 모든 일, 기도, 사도직 활동, 부부 생활, 가정생활, 일상 노동, 심신의 휴식은, 성령 안에서 행하며 더구나 생활의 어려움을 인내로이 참아 받는다면, 그 모든 일을 하고 더욱이 삶의 괴로움을 꿋꿋이 견뎌낸다면, 예수 그리스

*평신도-내지 1904.6.302:54AM 페이지3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평신도들은 교회 생활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는 사회의 활력소와 원리를 갖게 됩니다.

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물이 되고(1베드 2,5 참조) 성찬례 거행 때에 주님의 몸과 함께 정성되이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된다. 또한 이와 같이 평신도들은 어디에서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배자로서 바로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한다"(‘교회헌장’, 34항, 10항 참조).

이 부분을 읽고 나서 괄호 안 성경의 장, 절과 주석(note, nota) 부분을 문헌에서 찾아봤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 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1베드 2,4-5).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증거와 당신의 봉사를 계속하시기를 바라시기에, 당신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갖 좋은 일과 완전한 일을 하도록 끊임없이 재촉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사명에 밀접히 결합시키신 평신도들에게 당신 사제직의 일부를 맡기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영신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그러한 까닭에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성령으로 도유된 사람들로서… 또한 이와 같이 평신도들은 어디에서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배자로서 바로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한다"(‘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인류의 빛’ 34).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 또는 교계 사제직은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그 하나하나가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비오 12세 훈화 Magnificate Dominum, 1954. 11. 2)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직무 사제는 참으로 그가 지닌 거룩한 힘으로 사제다운 백성을 모으고 다스리며, 성찬의 희생 제사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거행하고 온 백성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그런가하면 신자들은 "자신의 왕다운 사제직의 힘으로 성찬의 봉헌에 참여"(비오 11세 회칙 Miserentissimus Redemtor 1928. 5. 8 외)하는 사람들로서 "여러 가지 성사를 받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극기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한다"고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10항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실수도 곧잘 하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사랑이신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하면서 나의 모든 일, 기도와 사도직 활동, 부부 생활, 가정생활, 일상의 노동과 심신의 휴식까지도 성령 안에서 행하고, 무엇보다 생활의 어려움을 인내로이 참아 받으면서, 그 모든 일을 해내고, 더욱이 삶의 괴로움을 꿋꿋이 견뎌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물이 되고, 성찬례 거행 때에 주님의 몸과 함께 정성되이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되는 그런 평신도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평신도-내지 1904.6.302:54AM 페이지4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숨고르고 귀기울이기
내 소리를 잠재우고 귀를 기울이세요

지난 6월 14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장익 요한 주교(81세)를 만나 현재 우리가 사는 모습과 신앙인으로서의 자기성찰에 관해 들어보았다.

장익 주교는 2013년 3월 춘천교구장직에서 은퇴하여 춘천시 신남면 실레마을 공소에서 살고 있다. 대담 · 정리: 배봉한 편집위원

말이 넘쳐나는 세상

오늘 우리나라가 기술이나 다른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자신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꽤 호기를 부릴 수도 있지만 정작 우리 본연에 관한 것, 곧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나 서로의 마음에 관해서 마음 쓰는 것은, 다른 데 쏟는 정열이나 노력에 비하면 한참 뒤지지요. 요즘은 능률이다 결과다 목표를 정해놓고 한참 긴장해서 헐레벌떡 뛰잖습니까? 그런 곳에 쏟는 정력이나 주의의 몇 분의 일만이라도 우리들 본연에 관한 것에 좀 기울였으면, 훨씬 더 물기가 도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곳곳에 있어요. 교육현장도 그렇고 정계는 말할 것도 없고, 안팎으로 서로 힘을 다 합쳐도 힘이 들게 된 처지인데, 합치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꺾고 밟고 일어서려는 경쟁의식으로만 어릴 때부터 세뇌돼서인지, 용납을 안 합니다.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남을 봐서는 서로 합칠 수가 없잖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텔레비전을 보세요. 거대담론은 잘합니다. 그런데 말이 모자라서 세상이 안 돌아간 적은 없거든요. 삶이 모자라서 그렇지. 입을 다물어야 해요. 입 다물고 내 속의 소리까지 잠재우고 들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들어야 되는데, 말이 넘쳐나요. 근거도 없이 누가 말을 하면 보태서 왜곡하고 엉터리가 되고. 말이 많으면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지요.

삶으로 말씀하시는 분

"행동이 뒤따를 때 입으로 하는 말은 효과를 지닙니다. 입은 다물고 행동으로 말합시다. 우리는 불행히도 말로는 부풀어 있고 행동은 텅 비어 있습니다." 6월 13일인 어제 성무일도 독서기도에 나오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신부님 강론 말씀 중 한 구절입니다.

새 교종(敎宗) 프란치스코, 그 어른을 보십시오. 교회 안팎에서 시비도 논란도 비난도 제안도 많았는데, 이분이 그런 논쟁에 뛰어드는 모습은 없고, 그냥 늘 살아오셨듯이 있는 그대로의 정말 참된 삶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많던 말이 쑥 들어갔어요. 그 어른이 처음 나타나시는 순간부터 누군가 보라고, 어떤 효과를 노리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여론이나 반응을 의식해서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기색은 하나도 없으셔요.

그동안 교회가 권위적이고, 남들이 볼 때 허물도 있고, 그러면서도 내 말이 옳다고 하니까 세계 언

*평신도-내지 1904.6.302:54AM 페이지5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우리나라만큼 소통 잘 되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있으려면 그 안에 침묵이 있어야 하지 않나, 내가 좀 조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론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분이 나타나서 그냥 계시니까 그런 말이 쑥 들어갔어요. 있는 그대로 살아오신 그대로 하시니까, 다 가만히 입 다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진실성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아쉬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듯해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내 소리를 잠재워야

한때는 '웰빙, 웰다잉' 하더니 요즘은 '힐링, 힐링' 하면서 상업적으로 엉뚱한 데다 힐링을 붙여요. 그러나 그 말이 갑자기 먹혀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어디가 성하지 않다는 자각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치유가 안 되고 아프다는 게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헐레벌떡 뛰고 있으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자기 자신과의 불일치, 남들과의 불화, 이런 데서 무언가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 온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간절하지 않은가 싶어요.

요즘 카톡이니 트위터니 페북이니 해서 몇백만 명과 연결된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간절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그중에 세 명만 있어도 많고 행복할 거예요.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노출이 되고 소통이 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마다 어마어마하게 외로운 거예요. 이런 현상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드는지도 모르죠. 그 많은 사람과 다 통하는 듯하지만, 정작 서로가 있어줘야 할 마당에 끝까지 길을 가줄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비슷한 느낌이니까 댓글을 다는 정도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밥상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얘기도 안 하는 가정이 있다면 이게 가족일까요? 전철을 타보면 한 줄이 일곱 자리인데, 노인들부터 새파란 젊은이들까지 모두 휴대폰을 만지고 있어요. 명동에 나가보면 젊은이들이 무수히 오가는데, 조심해야 해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앞도 안 보고 걸어오거든요.

우리나라만큼 소통 잘 되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있으려면 그 안에 침묵이 있어야 하지 않나, 내가 좀 조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화라고 해서 실시

*평신도-내지 1904.6.302:54AM 페이지6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간으로 모든 걸 다 경험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의미로는 거기에 휘말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을 넣을까 말까 하는 것은 돈과 상관이 있지만, 극소수의 사람이 결정합니다. 나머지 사람은 그냥 휘말려요.

나이가 많든 적든, 배운 게 많든 적든, 자기 나름의 좋은 의미의 눈을 가지고 줏대를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 체해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잘 깔린 나라가 없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살리고 있는 건지, 거기에 내가 지배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내가 부리고 있는 건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할 게 없다

피정이 내가 고달프니까 숨을 좀 돌리러 가는 면도 있지만, 주목적은 그게 아니잖습니까. 숨을 고르고, 내 소리를 잠재우고,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조용해야지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요. 내 소리를 잠재우러 가는 게 피정의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나 자신을 비우고 내 소리를 잠재워야 하느님 말씀이 들려오고, 들려온 것을 깊이 깨달으면 마음이 동해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듣고 새겨 내 것을 삼아서 행하는 것, 그런 동력과 계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 신학생 때 미국 켄터키에 있는 겟세마니라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피정을 하러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토머스 머튼이 살았던 곳이죠. 열흘씩 대침묵을 하며 피정을 하는데, 원장 신부님이신 아빠스가 참 덕이 있는 분이었어요. 거기 사는 수사 신부만 하더라도 160명이나 되어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 신학생 하나가 개인피정을 하러 왔다고 저를 부르셔요. 가보면 흰 회칠만 한 방에 나무로 엮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종일 앉아서 나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처럼 앉아계셔요.

그런데 책상 앞에 실물 해골바가지가 있는데, 하도 쓰다듬어서 반질반질해요. 몇 번 가서 뵙다가 '이 해골은 왜 여기다 놓고 계셔요?' 했더니, 앞에 두고 있으면, 오늘 내일 지금 일어나는 일들,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이 영생의 시각에서 보면 급한 게 없대요. 그 어른은 전화를 안 해요. 전보도 바로 답하는 법이 없대요. 즉시 일어나는 반응을 가지고 하면 객관적이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일도 있고 해서, 일단 하루 재우고 기도를 나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고 답을 한대요. 하루 정도 못 기다릴 일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실레마을 공소에서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지요? (웃음) 주인 닮아서 제가 키우는 개 이름도 백수인데, 밥값은 하는데 왜 백수라 부르느냐고, 자존심이 상하는지 가끔씩은 열심히 짖어요. 실레공소 마당이 500평 정도로 넓은데 돌을 골라내고 주말농장으로 가족 단위로 가꾸고 있어요. 평일 아침미사는 7시이고, 공소가 시내에서 가까워 주일에는 신자들은 본당으로 가고 방문객들이 청하면 따로 시간을 정해 미사를 드립니다.

평일에는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주말에는 자취를 합니다. 일정에 매이지 않으니까 덩어리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가끔 생기는데, 한나절 앉아서 괜찮은 책을 찬찬히 몰입해서 읽는 게 큰 낙이죠. '다 지나간다-13억 중국인의 정신적 스승 지셴린의 인생 에세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피정 같은 것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정이란 게 열심히 강론 듣고 금방 딴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의 여유를 찾고, 소리를 잠재우고 듣는 거지요. 듣고 깨달아 행동으로 옮겨보는 동력과 힘을 얻는 게 피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신도내지 1904.6.302:54AM 페이지7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피 · 정 避 靜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지 않으면 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은, 분명히 아버지와 홀로 대화하던 침묵의 밤들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은 사람들의 소란 가운데에 그분을 있게 했던 활동이 끝난 후에, 그분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곤 했습니다.

주일 미사가 끝나면, 주보에 실린 피정 안내문에 오래 눈길이 머물곤 합니다.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만이 '새로운 아침' 을 맞이할 에너지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총을 향해 자신을 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올 여름, 은총을 향해 자신을 열고, 비움과 침묵의 상태에서 '하느님의 손 안에서 내가 만들어진다' 는 사실을 자각하고 싶습니다.



*평신도-내지 1904.6.302:54AM 페이지8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休

피정, 영혼의 휴식



피정은 마음의 쉼표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향하는 피정만큼 즐거운 휴가가 있을까?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쉼'의 시간으로 초대한다.

가톨릭 전통으로 초대하는 피정

영성은 가톨릭교회의 보물이다. 최근 이러한 영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성피정을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 가톨릭 영성피정은 종류가 다양하다.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렉시오 디비나(성독, 聖讀)은 단연 대표적인 영성피정이다. 거룩한 독서라고도 불리는 렉시오 디비나는 3~4세기 수도자들 중심으로 시작돼 12세기 카르투시오회 아빠스 귀고 2세에 의해 독서-묵상-기도-관상 4단계로 정착됐다.

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가 운영하는 연화리 피정의 집(054-973-4835)에서는 렉시오 디비나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여름에는 1박2일(8월 6~7일), 7박8일(8월 30일~9월 6일)의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피정이 마련돼 있으며, 옹달샘 어린이 피정은 초등학생들의 여름방학에 맞춰 7월 말 두 차례 진행된다. 연화리 피정의 집 외에도 경북 고성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원(010-2816-1986),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등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체험할 수 있다.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추구하는 '이냐시오 영신수련'과 기도와 신체활동을 결합한 '예수마음기도' 등도 가톨릭교회의 영성에 다가갈 수 있도록 신자들을 초대한다. 예수회 센터(02-3276-7733)에서는 여름을 맞아 7월 8~10일, 15~18일, 8월 23일~9월 1일 영신수련 피정을 진행한다. 성심수녀회가 운영하는 예수마음배움터(031-946-2338)에서도 이냐시오 영신수련은 물론 예수마음기도 영신수련이 마련돼 있으며, 예수수도회(010-2816-1986)가 주최하는 영신수련도 있다.

한편 정하상교육회관(044-863-5690-2, 충남 세종시)은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루카 11,1)'를 주제로 한 기도학교 2박3일 피정, 대전교구 총대리 김종수 주교의 2박3일 말씀피정 등 영성으로 이끄는 피정을 다채롭게 마련해 놓았다.

청소년 · 젊은이들의 열정으로 만드는 피정

이태백, 88만원 세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피정'은 좋은 안식처다. 영적 갈증을 호소

*평신도내지 1904.6.302:54AM 페이지9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 요셉수도원 피정

◀ 성 필립보 생태마을 생태 · 환경 체험 피정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교회는 보다 풍성한 피정을 마련해 놓았다. 서울대교구 선교문화봉사국(02-727-2031)과 명동대성당은 신앙의 해를 맞아 공동으로 청년 피정 '헬로우 기도'를 진행 중이다. '헬로우 기도'는 성바오로딸수도회 진행으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도와 묵상 방법을 알려주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끈다. 올 2월부터 시작된 피정은 매월 첫째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열린다.

예수회 젊은이 피정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피정 중 하나다. 피정마다 주제가 달라,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오는 8월 16~18일 경기도 시흥 소래 성바오로 피정집에서 열리는 젊은이 피정 주제는 '빛과 어둠 사이'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피정은 '수도원 체험'이 주를 이룬다. 예수회 수도생활체험학교 '모하기'가 8월 8~11일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010-2628-0234)가 7월 6일 성인을 대상으로(비신자 포함) '수도원 1일 체험' 시간을 갖는다.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010-9890-8809)는 여름성소 피정을 마련해 경남 산청 성심원(7월 29~31일, 중고등부 대상)과 전북 장수군 지지리(8월 9~11일, 일반부 대상)에서 각각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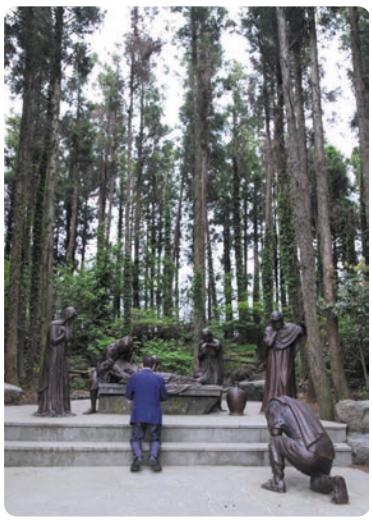
7월 27~31일 진행되는 구산성지(031-792-8540)의 '순교자 체득학교'는 독특하게 순교자의 신앙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교회사와 12기도문 암송 등을 실천하게 한다. '순교자처럼 우리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80명 정원에 100여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가족과 함께 하는 따뜻한 피정

요즘 인기 TV프로그램을 보면 '가족' 이야기 일색이다. 아빠와 여행을 떠나고, 엄마와 함께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부부가 나와 허심탄회한 속내를 드러내며 눈물짓고 미소를 머금는다.

내적인 여정인 피정도 가족과 함께한다면 즐거움은 배가된다. 예수회 센터는 7월 26~28일 가족 피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미니코 피정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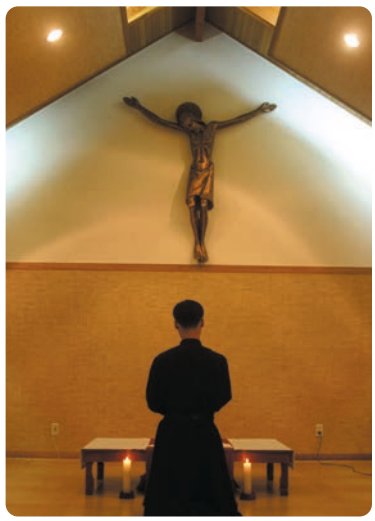
*평신도-내지 1904.6.302:54AM 페이지10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 제주 이시돌 피정의 집



▲ 마산 교육회관



▲ 예수고난회 오상 영성의 집

(033-343-0201)은 성지순례와 함께 하는 2박3일 순교자 영성피정, 가정의 일치와 성화를 위한 가족피정, 부부피정 등 가족피정을 접수하고 있다.

수원교구 필립보 생태마을(033-333-8066, 강원도 평창)는 가족 중심의 환경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가족환경피정을 8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피정 중에는 래프팅, 환경강의, 별자리 관측, 자전거 발전기, 감자 캐기, 옥수수 따기, OHP 환경 인형극, 도전 골든 징, 지구를 위한 미사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은 물론 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수성심시녀회 대구관구의 '조이플스테이'(010-2649-2045)도 '관계성'을 강조하는 피정으로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푸른 피정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이시돌 피정센터(02-773-1455)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시돌 자연피정'을 진행한다. 제주도 이시돌 목장의 평화롭고 고요한 초원은 영혼의 쉼터로서 안성맞춤이다. 특히 루르드 동굴과 묵주 모양의 연못둘레 산책로, 기도의 오솔길과 십자가의 길, 겟세마니의 예수상은 진정한 내면으로의 여행을 돕는다.

지리산 피아골 피정의 집(02-755-3309)에서 열리는 자연피정도 추천할 만하다.

'자연 안에서 하느님과의 만남과 체험(만남에서 오는 감사와 평화)'을 주제로 열리는 피정은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평화를 체험하고, 일상에서 받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다. 더불어 피정의 집 은근에 전주 치명자산, 숲정이, 천호성지 등 순교성지뿐만 아니라 연곡사, 화엄사, 쌍계사, 천은사, 화개장터 등 관광지까지 있으므로 피정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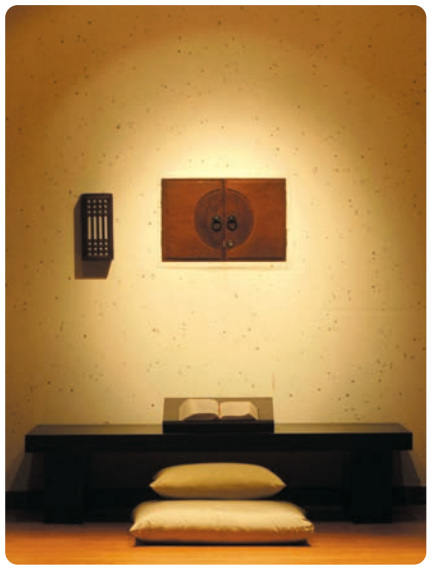
이지연 편집위원

(사진제공 : 가톨릭신문 · 경향잡지 김민수 기자)

*평신도-내지 1904.6.302:54AM 페이지11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 공세리성당 예수마음 피정의 집



‘피정이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피정(避靜, recollectio)은 신앙인들이 일상을 떠나 일정 기간 조용히 자신을 살피며 수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성 생활에 필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쇄신을 위해 일정 기간 묵상과 성찰, 기도 등과 같은 종교적 수련을 행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합성어인 피정은 피속추정(避俗追靜)의 준말이라는 설과 피세정염(避世靜念)의 준말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피속추정은 ‘세속을 피해 고요함을 따른다’는 뜻이고 피세정염은 ‘세상을 피해 고요한 마음을 지닌다’는 뜻이다.

피정은 예수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했던 일을 그의 제자들이 본받아 수행하게 되면서부터 그리스도교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피정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성 이냐시오 로욜라가 그의 책 〈영신수련 Exercitia Spiritualia〉에서 피정의 구체적 수련 방법을 발전시키면서부터다. 이후 많은 성인(聖人)들로 인해 피정은 더욱 확산되었으며, 17세기에는 ‘피정의 집’이라는 특정한 기도의 장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현행 교회법 규정에는 피정의 기간과 방법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다만 신학생은 매년 피정을 해야 하고(교회법 246조 5항), 수도자 역시 연례 피정을 성실히 해야 하고(663조 5항), 재속회원도 연례 피정기간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성직자는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영성피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276조 2항 4호)

*평신도-내지 1904.6.302:54AM 페이지12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쉰다는 행위'의 정체는?

休

정도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신분석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전국 직장인들이 휴가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사람이 일만 하면서,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다면 정말 힘들 것이다. 휴가는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권리를 떠나 쉰다는 것은 삶에 있어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쉬지 않고는 재충전되지 않고, 재충전되지 않고는 건강과 일과 가족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려고 애를 쓴다.

쉰다는 행위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 넓은 들이나 높은 산으로 나가 활발한 신체활동을 해야 진정으로 쉬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집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몸과 머리를 쉬게 하는 것이 진짜라는 주장도 있다.

어떤 방법을 좋아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쉴 수 있는 시간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때로는 무리를 한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일종의 '제로 섬(zero-sum) 게임'이어서 쉬기 위해서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쉴 시간을 벌어야 한다.

막상 휴가를 얻으면? 애써 확보한 휴가를 낭비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피곤을 무릅쓰고 서둘러 떠나지만 우선 고속도로부터 막힌다. 고생 끝에 도착한 휴가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스트레스를 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같이 말하고 행동한다. 휴가지의 낮과 밤은 고성(高聲), 음주(飮酒), 방가(放歌), 싸움으로 이어진다. 삶의 모순을 되씹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히기라도 하면 즐겁게 쉬자고 같이 떠났던 가족 간에 원망 타령이 시작된다.

밖에서 닥칠 일이 두려워 휴가를 집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갑자기 늘어난 시간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밀린 잠을 잔다. 이렇게 며칠을 지내면 수면 리듬이 깨지면서 불면증이 생긴다. 전 국민이 만만하게 취미로 여기는 독서라도? 휴가 중에 가장이 집에서 하루 세 끼를 챙겨 먹으면서 독서삼매경에 빠진다면 매우 위험한 일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가족의 원성이 하늘까지는 몰라도 지붕 정도는 쉽게 찌를 것이다. 가장의 재가(在家) 독서 휴가는 주부와 자식들에게 고문이다.

나는 쉰다는 명분으로 교통지옥을 뚫고 멀리 가는 것도, 방구석만 지키고 있는 것도 다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내가 좋아하는 '쉰다는 행위'는 철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쉬는 것이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조금씩 다르다. 내가 주장하는 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그것을 쉬는

*평신도-내지 1904.6.302:54AM 페이지13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다.

나라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외활동, 미술반이나 음악반은 그저 형식이었고 따로 돈을 들여 방과 후에 뭘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다.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 군의관 3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전임의 1년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가 버렸다. 전임강사부터 시작한 교수 생활도 점점 바빠져서, 한가한 적이 없었다. 미국 연수 때 캘리포니아에 살았지만 하나라도 더 배워오겠다는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못 가본 무책임한 가장이 되어버렸다.

제대로 쉬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했는지 수년 전부터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이 들어 거칠어진 목소리가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어서 시작한 일이니 동기가 순수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꽤 재미있다. 또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일어, 중국어를 집적거리고 있으나 결과가 어떨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쉰다는 것은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내가 배우고 싶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이 더욱 더 중요해지는데 꽤 오래 된 의사 생활과 개인 경험을 통해 터득한 바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몸도 마음도 무리를 하게 되면 항상 신호를 보내지만 사람의 오만함이 이를 무시하다가 병이 생긴다고 나는 감히 주장한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평소에 안테나를 잘 세우고 있다가 그때그때 쉬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 역시 한 번에 몰아서 쉬는 방법이 아닌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쉬는 것이니 기질이 호방(豪放)하신 분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쉰다는 행위는 지극히 주관적이니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다. 내게 맞는 방식이 최고다. 쉬는 것과 일하는 것을 나누어서 "일할 것인가, 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식의 불필요한 갈등이 생긴다면 "쉬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쉬는 식"의 융합을 선택하도록 자신을 설득하면 된다.

또한 배우면서 쉴 수 있다면 일거양득(一擧兩得)이 아니겠는가. 할 일 없이 쉬기만 하면 집 정리를 열심히 했지만 그 집에 살지 않아서 남는 것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14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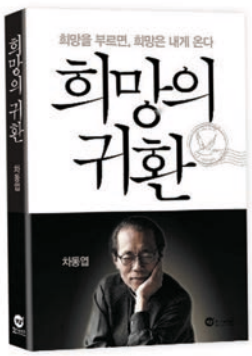
김문태 글
오병한 사진
최기복 감수
가톨릭출판사 펴냄
154×224 404쪽 15,000원

1794년 주문모 신부가 입국해 이 땅에 처음 미사성제를 올렸다. 그분의 눈부신 활약으로 조선 신자는 당시 1만명에 이르렀다. 1801년 신유박해 때 그분은 조국으로 피신할 수도 있었지만 양 떼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어 돌아와 의금부에 자수하고 5월 31일 새남터에서 순교하셨다. 하느님 나라에 국경이 있으랴마는 이로써 우리는 신앙적으로 중국에 큰 빚을 졌다.

'둥베이는 말한다'는 반대상황을 전한다. 이 책은 일제 때 중국으로 파견되어 선교하다 순교한 한국 천주교회의 '첫 번째 해외 선교사' 김선영 요셉 · 임복만 바오로 · 양세환 비오 신부와 이들 세 사제를 보필하기 위해 일생을 봉헌한 안노길 루치아, 고 최경숙 모니카, 강순옥 데레사 수녀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2001~2010년 12차례 중국을 찾아가 구석구석을 누비며 발로 쓴 신앙 답사기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은 모든 종교를 탄압하고 외국 선교사들에게 제국주의자들이 보낸 '스파이'라는 혐의까지 씌웠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 사제는 양 떼를 버리고 떠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그곳에 머물렀고, 모두 감옥에 갇혀 모진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세 사제들에 대한 선교 답사와 증언 채록은 '님 찾아 구만 리'의 여정이다. 중국 지하교회와 지상교회, 한족과 조선족을 불문하고 세 사제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증언을 들었다.



차동엽 지음
위즈앤비즈 펴냄
150×218 316쪽 14,800원

숨 가쁘게 달려온 압축성장은 우리를 지구촌이 부러워하는 부국 반열에 올려놓았건만 무한경쟁과 상대적 박탈감이 낳은 부작용도 만만찮다. 특히 자살률은 세계 수위권이다.

우리 사회가 행복지수가 낮다는 차원을 넘어 집단우울증을 앓고 있다. 2030세대는 일찍이 비정한 경쟁사회의 '쓴맛'을 알아버렸고, 40세대는 용한번 제대로 써보기 전에 '노쇠 증후군'에 시달리며, 5060세대는 인생 메이저리그와의 결별 고민에 불쑥불쑥 '황망'에 빠진다.

희망멘토 차동엽 신부가 희망의 귀환'이라는 보따리를 풀었다. 절망, 포기, 체념을 넘어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누군가 나를 다시 한 번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다면 차 신부가 말하는 희망에 귀 기울여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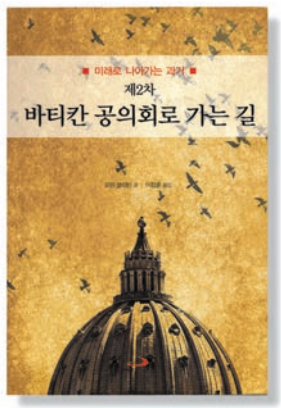
희망의 귀환'은 포옹하라-춤추라-심기일전하라-즐겨라'라는 파트당 3개 주제씩 총 12가지 희망의 증거들을 노래하는 '희망경전'이다. 각 주제 끝에서는 우리 시대 고민과 아픔을 담은 질문에 대해 저자 특유의 빛나는 사유로 갈무리한 보석 같은 멘토링을 얻을 수 있다.

차 신부는 에필로그에서 영적 아버지 본능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희망에 관한 지혜라면 발품을 팔아서라도 수집했다. 답답할 땐 번민했다. 안 보일 땐 마구 추적했다. 마침내 희망향연의 식탁 한 상 조촐하게 차렸다. 맘껏 즐기시고 기운 차리시길!"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15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이 책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특징을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교회가 평신도를 바라보는 시각, 교회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고찰한다. 첫째, 세상은 속이고 교회는 성이라는 생각, 세상은 비구원의 상황이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생각을 극복했다. 둘째, 이전 평신도는 성직자 수도자에 비해 열등한 존재, 늘 죄인이었지만 공의회는 평신도를 새롭게 이해했다. 평신도는 성직자와 같은 하느님 백성으로 동등한 품위를 지니며 세상을 하느님 뜻대로 관리하도록 불림 받은 사람이다. 셋째, 교회 자신에 대한 시각 변화는 요한 23세가 선종한 후 바오로 6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직에 오른 조반니 몬티니 추기경이 1962년 12월 성 암브로시오 축일에 행한 강론에서 함축된다. "어제, 교회의 주제는 교황 권력에 한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교회의 주제는 주교, 수도자, 평신도. 그리고 교회의 몸 전체로 확대됩니다. 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대외적 역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가져다주신 교회의 내적 생명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자 모린 설리반 수녀는 "1962~1965년 짧은 기간에 가톨릭 신앙의 핵심을 다룬 문헌이 16편이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공의회 이전부터 참된 예언자로 활동한 요한 아담 뮐러, 존 헨리 뉴먼, 카를 라너, 이브 콩가르 등 공의회 신학의 건축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책 곳곳에서 그들을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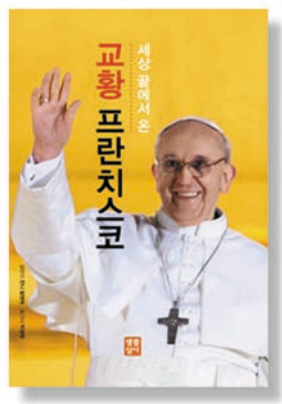
모린 설리반 지음
이창훈 옮김
성바오로 펴냄
152×225 228쪽 12,000원

일개 임금님도 하늘이 낸다는 데 하물며 하느님께서 시대마다 징표로 내세우시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인물은 분명 아닐 게다.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 추기경이 새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해했다. 그는 과연 누구인가?

생활성서사가 베드로의 후계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품, 생각, 생활방식을 비추어 주는 책을 국내에서 가장 발빠르게 발간했다. 이 책 '세상 끝에서 온 교황 프란치스코'는 세계적 가톨릭 월간지 <30Giorni>(30일)에 2008년 게재됐던 '파드레 베르골료의 친구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비야스 미세리아의 빈민들과 사제들, 성인들'이란 제목의 르포와 2002~2009년 베르골료 추기경과 가졌던 인터뷰 기사를 엮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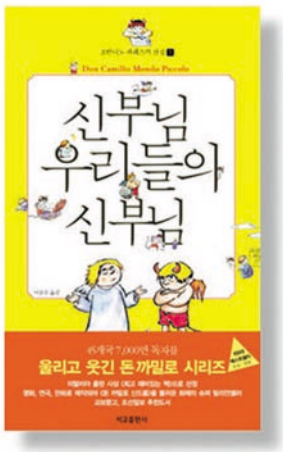
이 책에서 베르골료 추기경은 행동하고 말하는 것 안에서 오직 한 가지만 반복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생각하는 교회는 오직 은총에 힘입어 살고 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권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 특히 교회법의 사각 지대에서 성사를 받지 못하는 이들, 가난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이 성사의 은총을 누리며 그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헌신했다.

세상 끝에서 온 교황' 이라는 말은 바티칸의 반대편 남미에서 온 교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는 참으로 인류의 변두리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았다



잔니 발렌테 지음
박점례 옮김
생활성서사 펴냄
양장 151쪽 10,000원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16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조바니노 과레스키 지음
서교출판 펴냄
전 10권 각권 9500원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시리즈는 저자 조바니노 과레스키를 이탈리아 국민작가 반열에 올려놓은 연작소설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 패전과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을 겪고 있던 조국 이탈리아 국민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과 웃음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고향에 있는 뽀 강 유역 마을을 배경으로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시리즈를 쓰기 시작했다.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찬 바싸 마을에는 덩치가 크고 성질 급한 돈 까밀로 신부와 주먹질에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공산당 소속 깡패 읍장 뻬뽀네, 그리고 그들 간의 다툼에 언제나 중심을 잡아주는 예수님이 함께 산다. 정치적 견해 차이로 티격태격거리는 두 사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들은 독자들을 때로는 눈물 짓게 하고 때로는 미소 짓게 한다.

매력적이고 독특한 캐릭터들의 활동을 그린 연작소설인 데다 콩트 형식 단편소설이어서 요즘처럼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도 전혀 지루하지 않게, 아니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다.

가톨릭과 공산주의라는 전혀 다른 이념 세계를 대표하는 신부와 읍장은 각자 나름의 논리와 입장에 따라 논쟁과 힘겨루기를 벌일 수밖에 없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왠지 '신부님~' 시리즈의 애독자였던 교황 요한 23세와 후르시초프 옛소련 서기장이 두 캐릭터와 오버랩된다.



차동엽 엮음
위즈앤비즈 펴냄
양장 300쪽 14,000원

德香萬年!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신 지 5년이 다가오지만 님의 향기는 모든 이의 가슴에 여전히 그윽하다. 이 책은 전 생애를 통해 보여준 님의 인간사랑을 편지 형식으로 엮어 큰어른의 부재로 이리저리 헤매는 우리를 위로하고 힐링한다.

차동엽 신부가 추기경 님의 친전을 새로 엮어냈다. 우선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라는 추기경의 애창곡을 실마리로 붙잡은 아이디어가 놀랍고, 추기경님의 관한 방대한 자료에서 시의적절한 육성을 뽑아낸 정성과 혜안이 갸륵하고 빼어나다.

절망한 이들에게 보내는 1장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불안과 회의를 겪는 이들에게 보내는 2장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그대여', 청춘들에게 보내는 3장 '청춘이 민족입니다', 상처 입은 이들에게 보내는 4장 '상처 입은 치유자', 행복하기를 꿈꾸는 이들에게 보내는 5장 '내 기쁨을 그대와 나누고 싶습니다' 를 아우르는 구성 또한 탁월하다.

'친전' 은 추기경의 육성을 고스란히 담았다. 친전을 마주하면 여전히 넉넉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름살 낀, 나아가 살짝 흔들리기까지 하는 목소리를 타고 님의 애절함이 절절히 들려온다. 가만히 들어보면 귀하디 귀한 1000년의 지혜, 아니 만년의 지혜가 참행복의 길,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묘책을 알려준다.

김수환 추기경이 발신하고, 차동엽 신부가 배달하는 이 '친전' 의 수신자는 시대를 초월해 위로를 받고자 하는 모든 개개인이다. 김선동 편집위원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17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쉼, 비움의 또 다른 얼굴

조경자 오틸리아(천주섭리수녀회 수녀)

연중 피정으로 일상과 사도직 현장을 떠나 강원도 인제군 남면에 있는 피정집에서 열흘간 머물다가 왔다. 그곳은 밤이면 반짝이는 별을 머리에 이고 노루가 가끔씩 마을로 내려오는 곳이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앞산 자락으로 비안개 둘러쳐지면서 산신령이라도 나타날 것같이 신비스런 곳이다.

모처럼 쉬고 기도하며 하느님을 찾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해 준 풀, 꽃, 나무, 새, 맑은 물소리와 같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들은 침묵과 기도 중에 있는 나에게 거룩한 고독과 자비와 연민과 여림의 미학을 가르치는 스승이며 상한 내 영혼과 심령을 치유해 주는 의사이기도 했다. 자연 안에서 나는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나를 낮추고 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종용하지도 않은데 산책길에서 만난 이름 없는 풀과 꽃, 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오늘 하루 햇볕을 주시고 생명을 돌보는 하느님의 나직한 음성도 듣는다.

소임을 수행하는 번잡한 생활 속에서는 잘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 잠시나마 있던 곳을 떠나 어떤 형태의 것이든 내려놓고 비워내는 자리에 '자연'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느님은 그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신다. 그것을 얻기 위해 나는 피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얻겠다는 마음조차 없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역설을 체험하는지도 모르겠다.

진정한 쉼은, 앞만 보고 달리는 마라톤 같은 우리네 삶의 여정에서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세상 만물을 향해 사랑과 평화로 날아오르기 위한 겸손과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잠시 멈추어 선 상태라고 말하고 싶다.

산책길에선 뻐꾸기 울음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온다. 그 소리는 모든 자연이 다 그렇듯 꾸밈 없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장가를 듣는 아이처럼 가만히 그 소리를 듣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본다. 붉은 햇덩이가 산 뒤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어둠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빛깔로 세상을 물들일지. 그 어둠 속에서 서로 기대어 평안히 잠들 피정집의 강아지 두 마리를 보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전혜린 작가가 쓴 책의 한 구절이 생각나 옮겨 본다.

"돌아갈 곳을 가진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따뜻한 아궁이로, 엄마의 품속으로. 어느 곳이든 그를 위한 사랑과 기도가 있는 곳이면 그것은 인간에게 평안을 준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계절,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우리의 생명 또한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소나무 가지 사이를 넘나드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과 어둠 속에서도 무더기로 피어 더욱 밝은 빛을 내는 개망초꽃들에게서 나를 잊지 않고 품어 주시는 하느님의 넉넉한 사랑을 느낀다.

돌아갈 수 있는 곳을 가진다는 것은 이토록 좋은 것이다. 나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 항상 두 팔을 뻗어 따뜻하게 안아주려 기다리고 있는 그분,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며 희망인지!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18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열린 세계로 이끌어준 삶

정찬남 모니카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원장, 동방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 문예교실 입학식



▲ 강의하는 정찬남 교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단체인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원장이자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 평생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정찬남 교수(모니카 · 65)를 6월 20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만났다.

비문해자교육 전문가, 여성문제 연구가, 박사, 교수, 지역사회와 각종 단체의 대표 및 자문위원, 한글 교재 편찬자 등 그가 맡고 있는 역할과 직함은 산더미처럼 많고 화려하지만, 직접 만난 정찬남 교수의 첫 인상은 검소하고 단아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저는 원래 만화와 무협지를 좋아하고, 지나치게 명랑할 정도로 까불고 장난이 심한 '말괄량이' 였습니다. 그런데 여고 1학년 때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철이 들었다는 정 교수는 당시 여고생이었지만 새벽 미사를 빠지지 않고 참례했고, 가톨릭학생회, 레지오,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가톨릭 신자' 라는 자부심과 함께 하느님 뜻에 맞갖게 살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말했다.

그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어떻게 하면 자신을 버릴 수 있는지 고민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가 여고시절을 보냈던 1960년대 한국천주교회 안에서는 '공의회 정신' 에 따라 헌신과 희생, 극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19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기의 삶이 신자들의 로망이었다고 한다.

그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성인성녀들의 전기를 읽으며 그분들의 선행을 따라해 보기도 했는데, "도저히 성인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포기했다"며 웃었다.

하지만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한시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지만, 전공 공부보다 사회 교육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즈음 그는 고려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한부인회' 등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소외계층 여성교육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지금의 대한극장 근처에 연세대 학생들이 하는 노동야학이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대신 수업을 해달라고 해서, '땜방 수업'을 가게 됐어요. 하필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수업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도착했어요. 너무 늦어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겠나 하며 몰래 교실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자습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향학열에 충격을 받았어요."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온 정 교수는 '저렇게 배움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겠다'고 마음먹고 봉천동에 사글세 방을 얻어 근로청소년, 성인, 주부, 노인 등 공교육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을 위한 '문해(문자해독)교실'을 열었다. 1978년부터 지금까지 그가 가르친 학생들은 약 3만명에 이른다.

"유치원부터 중학교, 머지않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할 것인데, 비문해자들을 위한 교육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교육소외계층인데도 말입니다."

정 교수는 처음 야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문해교실 운영비를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월말만 되면, 강의실 월세를 마련하느라 애가 탄단다. 그는 35년 동안 비문해자 교육을 하며 보람도 컸지만, 그게 '애달픈 세월'이기도 하다며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이 길이 '소명'이고, 진정한 고난과 가난은 궁핍이 아니라 열린 세계(하느님)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고 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던 그는 현대지식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의 지식욕구가 높아진 만큼 본당의 사목도 신자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사목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노후생활이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인사목에 더 많은 관심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후남 편집장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20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한국가톨릭약사회의 어제와 오늘



이강추 토마스 모어
(한국한국가톨릭약사회 회장)

올해로 창립 30돌을 맞은 가톨릭약사회가 지난 6월 9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보건사목위원장이시며 군종교구장이신 유수일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주교님을 모시고 기념미사를 올리고 특강을 들었다.

마침 예수성심성월이라 '예수님 마음'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자비와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내용으로 한 특강이었다.

가톨릭약사회 임원을 비롯해서 역대 회장, 인천교구와 수원교구약사회, 교수협의회, 병원약사협의회, 공직약사협의회와 일반회원 등 약 60명이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 주셨다.

이날은 또 가톨릭약사회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전국사도직 단체로 인준 받은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해서 더욱 뜻이 깊었다.

가톨릭약사회는 1982년 10월 27일 열렸던 '아시아 약학회의 (FAPA)' 준비위원들 중 교우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20명 정도가 모였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가톨릭약사회를 창설하자는 의견 일치를 보아서 시작되었다.

1983년 6월 8일 약 200명의 교우들이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을 모시고 '서울대교구 가톨릭약사회' 창립 미사를 올린 지 30년, 그동안 교구별로 가톨릭약사회가 설립되어 각각 운영되어 왔으며, 전국사도직단체로 인준을 받는 것이 숙원 사업이었다.

1999년 12월에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서 시작된 의약분업제도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사들의 생활패턴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약사는 물론이고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직접 투약하는 일선 약국의 약사들은 주변의 병 · 의원 의사들이 퇴근하기까지는 약국을 잠시도 비울 수 없을 만큼의 제도적인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약국을 개설한 약사들 중심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던 가톨릭약사회의 운영에도 변화의 바람이 몰아쳐 모임 자체도 위협을 받을 상황이었다.

2004년 9월에는 가톨릭의사협회, 가톨릭간호사협회, 가톨릭병원협회가 한국가톨릭의료협회를 조직하는 일에 가톨릭약사회도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아 임시 총회를 여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

2006년 7월에는 가톨릭의료협회가 주관하는 몽골의료선교 봉사활동에 약사회 회원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여 해마다 3명 정도를 현지 봉사활동에 파견하게 되었다. 또 약사들이 진출한 직종이 다양한 점에 착안하여 기존 가톨릭약사회 조직을 확대하여 직종별 협의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8년 6월에는 '가톨릭약사회 교수협의회'를, 2008년 12월에는 '가톨릭약사회 병원약사협의회'를, 2009년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21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가톨릭약사회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회장님을 비롯해 회원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내리시기를 기도 드리며 감사를 드린다.

12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교우약사들을 중심으로 '가톨릭약사회 공직약사협의회'를 설립하였다.

가톨릭약사회 교수협의회 회원 교수들은 전국 각 교구에 산재하고 있는 약학대학 교수들이며, 가톨릭약사회 병원약사협의회 회원들 역시 전국 각 교구에 산재하고 있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들이다.

2012년 6월 17일에는 가톨릭약사회 전국교구 임원회의를 절두산 성지와 꾸르실료회관에서 이재열 야고보 담당사제를 모시고 개최하여 전국사도직단체 인준 신청서를 주교회의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교구, 인천교구, 수원교구, 청주교구와 교수협의회, 병원약사협의회, 공직약사협의회 등 22명이 참석하였고 여타 교구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했다.

2012년 9월 22일 전국단체 인준 및 등재에 관한 주교님의 최종 결재를 받고 가톨릭의료협회를 경유하여 주교회의 사무국에 공문을 제출하였으며 2012년 10월 15일 주교회의상임위원회에서 인준되었고 2013년 3월에는 '한국가톨릭약사회'가 한국 평협 명단에도 올라가게 되었다.

실로 오랜 세월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어 지난해는 가톨릭약사회가 하느님의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은 해였다고 자부하고 싶다.

30주년을 지낸 한국가톨릭약사회는 이제 그 정체성이 더욱 뚜렷해졌고, 전국의 교구와 함께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가톨릭약사회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회장님을 비롯해 회원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내리시기를 기도 드리며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가톨릭약사회는 새로운 회원 발굴을 통한 젊은 피 수혈로 조직을 쇄신하고, 교회 내 생명 및 환경보전 운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피정 등 다양한 신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22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시복 · 시성을 위한 기도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



양두석 토마스
(한국평협 시복 · 시성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 천주교회는 1984년 5월 6일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집전으로 103위 복자들을 성인 반열에 올리는 시성식을 거행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가졌다. 이분들 중 79위는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로 1925년에, 그리고 24위는 병인박해 순교자로 1968년에 복자 반열에 오르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복자가 되는 데에는 당시 조선에 선교사들을 파견했던 프랑스의 노력이 컸다.

시복식이 거행될 때는 전 세계의 신자들 특히 유럽 각국의 수많은 신자들이 참여하는데, 1968년 10월 6일 병인박해 순교자 24위의 시복식이 거행되었던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는 수많은 프랑스 신자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분 성인들의 순교 행적은 달레 신부의 '한국교회사'를 비롯하여 현석문 가롤로의 '기해 일기'와 조선의 관변자료 등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복이 추진되었고, 복자품에 오른 지 길게는 59년, 짧게는 16년 만에 성인품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선교사들의 주도로 시복시성이 추진되면서 파리외방전교회가 조선 포교지를 담당하기 전, 즉 기해박해(1839년) 이전의 초기교회 순교자들이 누락된 점은 안타깝다. 하지만 이제 순전히 우리 한국교회의 자체 추동력으로 교황청 시성성에 '하느님의 종(Servus Dei)' 125위의 시복시성을 청원하게 되었다.



▲ 2011년 7월 9일 원주 배론성지에서 봉헌한 '하느님의 종' 125위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 출범미사

이들 순교자는 신유박해(1801년)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초기 선조 신앙인들로 103위 성인들의 부모들이자 스승들이다. 신해박해(1791년) 때 순교한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그리고 1793년 1월에 순교한 원시장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시복된다면, 조선 최초 중국인 사제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1794년 12월 24일(음력 12월 3일) 조선에 입국하기 전에 선교사의 전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순교한 것으로 드러나니 한국교회가 자생적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은 확연히 증명될 터다.

또한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 조숙 베드로와 권 데레사가 시복된다면 세계 그 어느 교회에서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23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 2011년 9월 4일 솔뫼성지에서 '하느님의 종'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 선포식이 거행되고 있다.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본받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신앙 쇄신을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이 시복시성 기도운동이다.

도 찾아볼 수 없는 2쌍의 동정부부 순교복자가 탄생하게 되어 한국교회의 자랑이 되고 전 세계의 신자들은 이들의 거룩한 성덕에 또 한 번 놀라고 감화될 것이다.

103위 성인에 들지 않은 초기교회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추진은 1982년에 시작되어 일부 순교자들을 선정하고 순교 행적을 조사하고 약전을 작성하다가 103위의 시성식이 늦어질 것을 염려하여 중단되었고 1984년 103위 시성식 이후 재개되었다.

전주교구가 독자적으로 '윤지충 등 5인 순교자'를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하고 교구 차원의 시복시성 기도운동을 시작하였으며, 교황청에 시복시성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1989년 4월 시성성으로부터 이들의 시복시성 청원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장애(障碍)없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청주교구, 수원교구, 대구대교구, 서울대교구 등이 시복시성운동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곧바로 주교회의 차원에서 통합 추진키로 결의하고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004년 7월 5일 시복 조사 법정을 개정해 '하느님의 종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및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을 위한 시복 재판과 현장 조사 등 한국교회 차원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방대한 약전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2009년 6월 3일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하고 시복을 청원했다. 이제는 시성성 신학위원회의 심사와 교황의 시복 교령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2008년 11월 복자 품에 오른 일본교회 순교자 188위가 시복되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 한편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에 대한 교황청 시성성 역사위원회 심사가 2013년 3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 12월 전에 순교자 124위에 대한 교황청의 모든 법적 검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한다.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본받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신앙 쇄신을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이 시복시성 기도운동이다. 시복시성 기도운동은 단지 순교자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다.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성지를 잘 가꾸고 보존하는 일, 순교자들에 대한 학술연구 등을 활발히 전개하거나 지원하는 것 역시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를 내세워 성지를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기념터라고 해도 될 만한 자리를 성지라는 이름으로 경쟁적으로 개발하다보니 전국적으로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200군데가 넘고, 버스나 전세 열차편으로 야유회를 가는 것인지 성지순례를 가는 것인지 모르는 소위 원족 성지순례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에 비해 정작 찾아야 할 성지는 방치되는 것을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24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본받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신앙 쇄신을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이 시복시성 기도운동이다.



▲ 2011년 12월 23일 '하느님의 종' 125위 시복시성 기도운동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바티칸 시성성을 방문한 한국평협 대표단

▼ 2012년 제주 도보성지 순례



왕왕 목격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서울 '서소문 순교성지'가 그렇다. 98위가 순교하고 이 중 44위가 성인품에 오른 최대 피의 순교 현장이요 성지이지만,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노숙자들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다.

이 중요한 성지를 최우선으로 개발하여 잘 보존하고 순례하며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그분들의 거룩한 삶을 본받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의 과제이자 시복시성을 기원하는 기도이지 않겠는가?

성인들에 대한 공경 태도도 그렇다. 본당 주보성인조차 잘 모르는 신자들도 많거니와 주보성인 상을 모신 본당도 별로 없다. 성인 공경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탓이다. 또 개신교로부터 우상숭배라는 비난을 의식한 탓도 있는 듯하다.

성인들에 대한 공경과 순교자들을 위한 기도를 생활화하는 운동이 절실하다. 교황청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은 '하느님의 종 시복시성 청원에서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라고 권고하셨다.

한국평협은 2011년 7월 9일 배론 성지에서 염수정 대주교의 집전으로 '하느님의 종' 125위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 출범미사를 봉헌했고, 9월 4일에는 솔뫼 성지에서 기도운동 선포식과 함께 도보 성지순례를 하고 이 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해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평협 대표단은 2011년 12월 23일 바티칸 시성성을 방문해 한 해 동안 각 교구 평협과 함께 대대적으로 펼친 '하느님의 종' 125위 시복시성기원 기도운동의 결과물을 제출하고 125억단의 묵주기도 봉헌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평협은 지난 7월 1일 명동대성당에서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님과 함께 '하느님의 종' 125위의 시복시성을 기원하는 '묵주기도의 밤' 행사를 열었으며 이 같은 기도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교자들의 거룩한 삶과 그들의 영웅적 성덕을 본받고 그 모범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겠는가?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25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여 름 밤

– 이준관

여름밤은 아름답구나.
여름밤은 뜬눈으로 지새우자.
아들아, 내가 이야기를 하마.
무릎 사이에 얼굴을 꼭 끼고 가까이 오라.
하늘의 저 많은 별들이
우리들을 그냥 잠들도록 놓아주지 않는구나.
나뭇잎에 진 한낮의 태양이
회중전등을 켜고 우리들의 추억을
깜짝깜짝 깨워 놓는구나.
아들아, 세상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은
너는 밤새 물어라.
저 별들이 아름다운 대답이 되어 줄 것이다.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 열 손가락에 달을 달아 주마.
달이 시들면
손가락을 펴서 하늘가에 달을 뿌려라.
여름밤은 아름답구나.
짧은 여름밤이 다 가기 전에(그래, 아름다운 것은 짧은 법!)
뜬눈으로
눈이 빨개지도록 아름다움을 보자.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26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제7회 우리 성가 작곡 공모 시상식



▲ 수상자 전원이 함께한 기념촬영



▲ 카리타스 합창단의 연주장면

지난 6월 28일 금요일, 명동성당 7시 미사에서 봉헌된 성가는 귀에 익숙지 않은 곡이었다. 한국평협이 '제7회 우리 성가 작곡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성가들이 시상식 미사를 통해 연주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가의 탄생은 지난해 우리 성가 노랫말 공모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7회 우리 성가 노랫말 공모를 통해 뽑힌 6편의 노랫말에 곡을 붙이는 작곡 공모가 이어졌고, 올해 3월 말까지 32명이 응모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4편을 선정했다. ▲최우수상 김은지(율리안나, 서울대교구 상암동성당) '기도' ▲우수상 박재서(프란치스코, 서울대교구 대치2동성당) '묵주기도' ▲장려상 김종완(라파엘, 부산교구 무거성당) '어머니 마리아', 이유주(소피아, 서울대교구 독산1동성당) '주님께 가는 길', 이형진(보나벤뚜라, 서울대교구 암사동성당) '기도', 장윤석(안셀모, 서울대교구 오금동 성요셉성당) '기도'이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 손희송 신부)는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성가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우리 성가 공모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리 성가 공모사업은 신자들이 전례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전례의 토착화를 촉진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27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 시상식 미사를 드리는 교우들



▲ 수상자에게 상패 수여



▲ 최우수상 김은지 양의 수상소감 발표

하기 위해 우리말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노랫말을 공모하여, 선정된 노랫말에 곡을 붙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7회에 이어오는 동안 총 40편의 노랫말에 곡을 붙여 36곡이 만들어졌다.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이며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대주교도 한국평협이 주최하는 우리 성가 공모 사업에 대해 "신자들이 하느님과 깊이 일치하도록 전례 토착화에 이바지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우리 성가 공모에 응모하는 신자들은 평소에 열심한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기도와 봉사에 앞장서는 분들이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아버지가 만든 노랫말에 아들이 곡을 만들어 수상하는 아름다운 일도 있었다.

한국평협은 지난해 그동안 발표했던 우리 성가를 모아 CD를 제작해 무상으로 보급하며 우리 성가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도 했다.

이번 작곡 공모의 심사는 김혜자 교수(전 추계예술대학교 작곡과), 박영희 교수(전 독일 브레멘국립예술대학교), 이경미 교수(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허영한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학과)가 맡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허영한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예심을 거쳐 올라온 24편은 예년에 비해 작품의 성향이 다양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만큼 응모자들이 더욱 진지해졌음을 뜻한다"며 "선정된 작품들은 가사 전달과 표현에 있어서 탁월했다. 일부 응모작들 중에는 독창곡으로 뛰어날지는 몰라도 합창에는 적절하지 못해 안타깝게도 탈락한 작품들이 있다. 성가는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선율이 적합하다. 불필요한 변화를 줄여서 적절한 길이의 성가를 만드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은지 씨(율리안나, 서울 상암동성당)는 수상소감에서 "경험 삼아 도전한 곡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다.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제 곡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우수상 수상자 박재서 씨(프란치스코, 서울 대치2동성당)는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열심히 작곡 활동을 하여 좋은 곡으로 보답하는 작곡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우리 성가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우리 성가 노랫말과 작곡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평협 누리방(www.clak.or.kr)을 통해 알 수 있다.

신동수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과장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28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신앙에 물주기 | 기도 편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담당사제)

올해는 교황청이 선포한 '신앙의 해' 입니다.
계간 〈평신도〉에서는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
굳건한 믿음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신앙의 해 특집 – 신앙에 물주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말씀과 전례, 기도와 나눔을
통해 성장합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님의 연재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현존하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신앙의 해 특집 – 신앙에 물주기' 글 싣는 순서
* 봄 —— 말씀 편
*** 여름 —— 기도 편**
* 가을 —— 전례 편
* 겨울 —— 나눔 편

사랑이신 하느님은 우리를 참된 행복에로, 곧 당신과의 친교에로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 단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응답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부부의 연을 맺는 두 남녀는 결혼식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평생 그 약속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더라도 그 응답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만남을 통해서 돈독해지듯 하느님과의 관계도 기도를 통해서 돈독해집니다. 누구보다도 성부와의 깊은 친교 속에 사셨던 예수님은 꾸준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밤늦게 외딴 곳에 가셔서, 혹은 이른 아침 제자들이 아직 잠자고 있을 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식사할 틈도 없이 매우 바쁘게 사셨지만 자주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열두 사도를 뽑기 전에 밤 새워 기도하셨고, 수난을 앞두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루카 22,39-44 참조).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29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기도하지 말고 좋은 싫든 기쁘든 슬프든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도는 예수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런 기도 덕분에 예수님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몰려드는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바쁜 일상을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지속적인 이해부족과 나약함에도 낙담하지 않으시고, 반대자들의 비난과 저항에 굴하지 않으시면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굳건히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실천하실 수 있었던 것도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으니 그분을 믿는 이들도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마음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영적인 귀가 닫히고 마음이 메말라져서 하느님의 말씀이 따분하게 여겨지고, 세상의 목소리에 점점 솔깃하게 됩니다. 물을 주는 않으면 화초가 시들어 말라 죽듯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앙은 생기를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느 수사 신부님은 기도에 대해 매우 유익한 지침을 제시하십니다.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기도하지 말고 좋은 싫든 기쁘든 슬프든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생활은 요령이나 지름길도 없고 도약이나 비약도 없습니다. 기도는 이론이나 기술이 아니라 삶이요 실천이요 수행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생활에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나무가 며칠 사이에 부쩍 자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보이지 않게 자라듯 기도생활의 성장도 그러합니다. 꽃이 폈다 하여 당장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열매가 익어가는 때를 기다려야 하듯 기도의 열매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열매의 결과는 하느님께 맡기고 쉬지 않고 꾸준히 하면 마침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항구히 기도하십시오." (이수철, 「영원한 청춘을 살 수 있는 방법」,『생활성서』2009년 6월호 39쪽.)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루카 18,1-8 참조)고 명하셨습니다. 기도는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운동도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듯이 기도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순교자들이 바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신부님을 만나 성사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매우 적었지만, 꾸준히 조과(아침기도), 만과(저녁기도), 매괴신공(묵주기도) 등을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생활에서 힘을 얻어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평신도-내지 1904.6.30 2:55 AM 페이지30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구원은 하느님의 선물이지만,
기도 없이는 그 구원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 기도를 꼬박꼬박 바치다보면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더라도, 때로는 분심과 졸음이 섞인 기도라도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바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비록 특별한 느낌, 위로의 목소리, 뜨거운 감정은 없더라도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든든함을 느끼면서 마음의 평화와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감사, 청원, 탄원, 호소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내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라고 하셨습니다(마태 6,10 참조). 당신 스스로도 수난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마르 14,36) 하느님은 예수님에게 수난의 잔이 비켜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당신 뜻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류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당장 눈앞의 즐거움이 아니라 궁극적인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청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출세하고 싶어서 탁월한 능력을 청하더라도, 하느님은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어서 건강을 청하더라도, 하느님은 보다 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병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함을 청하더라도,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느님과의 '채널'이 계속 열려 있게 되어, 그분의 부르심을 더 분명하게 듣고 그분의 손길을 확실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 머물게 되면 신앙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밝은 눈으로 식별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그분과의 친교 안에 머무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선물이지만, 기도 없이는 그 구원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혹시 성사 없이 구원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 없이는 구원될 수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항구한 기도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신앙인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31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지금 SNS에서는 …

RT 유영훈 (한국평협 사무국장)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식 트위터 계정인 '@fontifex'를 통해 세계 신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또 바티칸 공식 뉴스공급처인 바티칸 사회홍보평의회에서 운영하는 홍보사이트 'news.va'의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news.va.en)을 통해서도 교황의 사목활동은 물론 교회의 주요 뉴스를 즉시 접할 수 있다. '평신도'에서는 그동안 포스팅된 뉴스 가운데 주요 장면을 소개한다.

6월 19일 올린 트윗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소식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볼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6월 12일 일반알현 중 훈화에서 "교회는 자선기관이나 문화단체 혹은 정치기관이 아니고, 역사 안에서 진보하고 활동하는 살아있는 몸이다. 그리고 이 몸은 우리를 인도하고, 자라나게 하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머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32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프란치스코 교황이 6월 5일 성 베드로광장에서 열린 일반알현 중 한 순례자가 던진 묵주를 받고 있다.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6월 12일)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동들을 '뛰어 놀도록 하지 않고 노예로 만든'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때로는 학대를 수반한 은밀한 착취의 희생양들인 수많은 아동, 특히 소녀들이 가난한 나라들에서 늘어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분열, 대립, 몰이해, 이기심을 넘어서 다른 이를 우리의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6월 19일 성 베드로광장에서 일반알현 중 자신의 무개차에 한 소년을 태우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6월 16일 20만명이 운집한 성 베드로광장에서 삼종기도 강론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너무 하찮게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을 차단하는 사상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둔다"며 언제나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길 요청했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33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었던 길

카미노 데 산티에고(Camino de Santiago)

최동준 보나벤뚜라(한국평협 복음화위원회 위원장)



▲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마을 생 장 피데 포르(Saint Jean Pied de Port). 카미노(순례길)를 시작하는 마을이다. 출발 직전 필자의 모습.

'카미노 데 산티에고!' (Camino de Santi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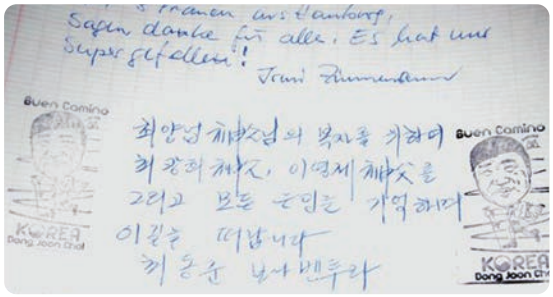
너무나 행복했던 2000리 길이었습니다. 걸으면서 행복했고 지금도 그 '성령'의 여운에 행복합니다. 카미노는 '길'이라는 스페인어이고, 티에고는 야고보 성인의 스페인어 표기입니다. 즉 '카미노 데 산티에고'는 야고보 성인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 걸었던 길이라는 뜻입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버킷 리스트) 중 하나였던 이 길의 순례를 감행했습니다. 64세라는 나이에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순례를 떠날 결심을 하고부터 나의 '카미노'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11Kg 정도의 배낭을 짊어져야 하는지라 부실한 무릎을 강화하기 위해 물리치료도 받고, 3개월에 걸쳐 65Kg이던 몸무게를 운동과 절제로 60Kg으로 줄였습니다.

순례는 2010년 5월 18일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마을 생 장 피데 포르(saint-jean-pied-de-port) 에서 시작해, 2010년 6월 18일까지 32일 동안 걸어서 스페인 산티에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한 치의 땅도 건너뛰지 않고 걸었던, '카미노 데 프란세스' (Camino de Frances)라고 부르는 가장 많은 순례객들이 선택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해발 1200~1500m 정도의 4개 언덕을 넘고, 일주일 정도의 메세타 지역(주로 땡볕이 내려쬐는 그늘이 적은 길)을 통과하고, 광활한 밀밭과 포도밭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34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 카미노의 첫 숙박지 오리손 알베르게의 방명록에 나의 커리커처 스템프와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을 위한 지향으로 이 길을 걷고 있음을 적었다.



▲ 메세타는 부르고스에서 레온에 이르는 길이다. 이 길은 걸어도 걸어도 그늘 한 점 만날 수 없는 광야의 길이다. 내리쬐는 태양 아래 내 그림자를 친구 삼아 걷는 이 길은 영적으로 심화되는 시간이다. 어느 날은 이런 길을 17km나 걸었다.

의 지평선을 지나는 800여 km의 도보 순례길이었습니다.

첫날이 지나고, 둘째날부터 종아리에 쥐가 나서 발걸음을 내디디기가 힘들고, 뒤꿈치에는 물집이 잡혀 한발 한발 내디딜 때마다 쓰리고, 배낭은 무겁고, 말은 안 통하고. 대체 840km라는 거리가 걸어서 얼마를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시작한 순례길이 긴장과 불안, 두려움과 걱정이 뒤엉켜 상심만 커져 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는 순례길이 되기를 성령께 의탁하는 것, 내 체력과 능력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당신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길을 걷다 보니 숨 쉬며 걸을 수 있는 것도, 한 조각의 빵과 커피 한 잔을 구할 수 있는 것도, 마을마다 줄줄 흐르고 있는 흔한 물 한 모금도, 한 방에서 몇십 명, 아니 어떤 곳은 백여 명이 함께 코골이와 잠꼬대로 어수선한 잠자리에 대해서도 어느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순례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도보의 고단함을 잊어버리고 "I am happy now!"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었지만, 저 스스로가 엄청난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티에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도착했을 때, 몸무게는 55Kg로 줄어들었지만, 처음에 그렇게 무겁던 11Kg의 배낭은 평화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어느새 빈 배낭처럼 가볍게 느껴져 배낭을 벗어 확인하는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무릎과 종아리의 통증, 짓무른 물집마저도 이 길에서 얻은 '은총의 선물'이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순례에 나선 지 20여 일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덕'을 지향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침내 550여 km 지점의 폰세바돈(해발 1439m)에 도착했습니다. 언덕의 정상에 세워진 '철 십자가'(La Cruz de Ferro)를 향해, 제 안의 교만과 미움과 악습을 그 십자가 돌무덤에 묻어버리고 싶다고 주님께 호소하고 성모님께 전구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두 볼을 타고 줄줄 흘려내렸습니다. 세례성사 때의 그 청순함과 순결한 영혼의 환희 같은 것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프랑스 생 장 피데 포르 순례자협회에서 순례 신고를 한 후 피레네 산맥을 넘어 800여 km의 거리와 32일간의 긴 여정을 체험하며 스페인 산티에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의 12시 순례자 미사의 영성체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까지. 도보 성지 순례는 각별한 은총의 체험이었습니다. 마치 세례성사로 신앙인의 삶으로 새로 태어나서, 온갖 유혹과 생사고락을 성사생활로 은총 속의 삶을 살다가, 지복지관(至福直觀 하느님을 직접 뵙는 영복에 이르는)의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35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 포세바돈(FONCE BADON) 크루스 데 페로(Cruz de Ferro) 철십자가 앞에서 나는 믿음의 걸림돌로 돌보다 더 단단하여 늘 나를 괴롭히는 내 안의 교만, 미움, 악습을 내 마음에서 비어내고 싶다고 주님께 호소했다.



▲ 산티에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 12시 순례자를 위한 미사는 모든 순례자들의 공통된 목표다. 32일의 대순례를 마치고 이 미사 말미의 영성체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날 감히 지복직관의 영광을 맛보았음을 고백케 한다.



▲ 산티아고에서 90km 떨어져있는 땅 끝 피네스테레(Finisterre). 순례자들이 자기가 신고 온 신발을 태우기도 한다. 나는 양말 한 짝을 기념으로 태웠다.

인생 여정과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에 적응하고, 그 모든 여정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얻으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여러 과정을 마친 후, 마침내 얻은 가장 큰 기쁨인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삶을 체험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 속에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의 선물에 기쁨을 만끽하며, 나 자신의 절제와 인내로 온유함을 잃지 않는 순례자 정신을 맛볼 수 있었음은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순례 내내 나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임을 확신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었던 840km 산티에고 도보 순례길은 내 인생 최고 축복이자 깨달음의 길이었습니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36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가난한 이를 선물로 여긴 선우경식의 영성

박문수 한국 가톨릭문화연구원 부원장

선우경식 요셉의 생애

고(故) 선우경식 요셉은 해방을 보름 앞둔 1945년 7월 31일 평양에서 아버지 선우영원과 어머니 손정복 사이에서 태어났다. 일곱 살 되던 해인 1951년 1·4 후퇴 때 부모님을 따라 현 성북구 길음동으로 이주하였다. 모태 신앙인 어머니와 신앙생활에 열심이셨던 부친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하였다.

1963년 가톨릭대 의과대학을 입학하여 1969년에 졸업하고 이후 인턴과정, 의무장교 복무를 마쳤으며, 1975년부터 1978년까지 뉴욕 브루클린 소재 킹스브룩 유대교 메디컬센터에서 일반 내과를 전공하였다. 귀국 후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를 거쳐 정선의 성 프란치스코 의원(1982~1983년), 사랑의 집 진료소(1983~1986년), 방지거 병원 내과장(1986~1987년)을 역임하였다. 1987년 요셉의원을 개원해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선종할 때(2008년 4월 18일)까지 독신으로 헌신하였다.

선우경식 요셉의 영성 '보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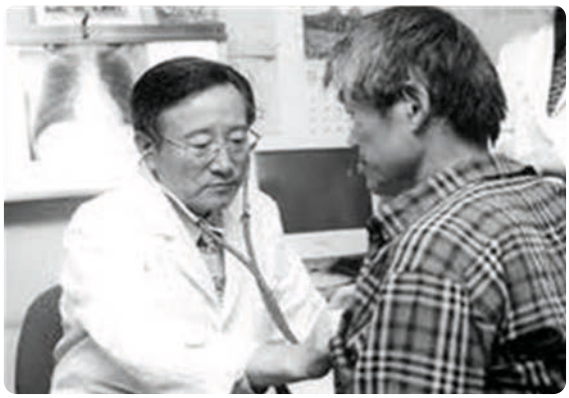
신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성인들이나 선우경식 선생 같은 분들의 태생이 남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생각은 존경심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 말엔 '나는 이분들처럼 살 수 없다'는 변명도 숨어 있다. 애초부터 이분들이 남달랐다고 해야 그나마 내가 그리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 수 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살아보니 이분들처럼 되는 일은 '매우 어려울 뿐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박해 시대에 순교자가 한 분도 없었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순교가 불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순교자가 있었다면 순교는 '매우 어려운 일일 뿐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이 이렇게 하셨다면 다른 의사들이 이리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일 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처럼 생각해야 우리가 배우려는 영성이 추상화되지 않는다.

선우경식 선생은 분명 남달랐다. 그는 의사가 된 후 가난한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정선으로 또 서울의 달동네로 달려갔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987년 우연히 불려간 신림동 달동네 주말 진료 때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만나게 된다. (선우경식, 《착한 이웃》, 2005년 1월호).

다른 의사들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원봉사만 하거나 개업한 병원에서 무료진료를 해주는 정도였는데, 그는 그 순간 평생 투신하기로 결심한다.

이 장면을 보면 선우경식이 '가난한 이의 얼굴을 한 예수'를 '보는 마음'(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마음 안에 선한 열망을 품었기에 짧은 순간 마주친 '가난한 이들의 얼굴과 그들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었다.

31항 가)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오랜 세월 마음 안에 선한 열망을 품었기에 짧은 순간 마주친 '가난한 이들의 얼굴과 그들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안에 깊이 새겨져 있던 하느님 마음이 예수님의 얼굴을 한 가난한 이들을 만났을 때 깨어났던 것이다.

그는 요셉의원 개원 4년차에 이런 체험도 한다. "'이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주저앉아 있을 무렵에는 어김없이 후원자가 나타나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너무 절묘해서 가슴이 섬뜩할 만큼 보이지 않는 힘을 느끼곤 했다. 차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차츰 하느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느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선우경식, 《착한 이웃》, 2007년 9월호).

이른바 섭리 체험이다.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뤄짐을 깨닫는 체험이다. 적극적이지만 수동적인 그리스도교 신체험의 전형적인 양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에서 도망가고 싶어 했다. 무례한 환자가 행패를 부릴 때, 후원금이 적게 들어와 빚이 쌓여갈 때, 계속 늘어나는 환자 때문에 쉴 수 없을 때 사고가 나 그만두기를 바랐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마음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처럼 나약했지만 하느님 때문에 강할 수 있었다. 그는 가난한 환자들의 모습을 한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자기를 조건 없이 내어줄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잘 때까지 재고, 힘들 땐 도망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위안이 된다. 애초에 강하고 잘 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남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로마 8,37).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38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신앙 선조들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천원주 대건안드레아 (한국언론진흥재단 교우회장)

"쿼바디스, 도미네?(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 폴란드 작가 샌케비치의 소설 '쿼바디스'를 읽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애타게 갈구하는 이 대목에서 한동안 멍해졌던 기억이 생생하다.

네로 황제의 갖은 박해,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처형되기 전 감옥 전체로 울려 퍼지는 찬송가 소리. 이런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꿋꿋이 지켜 나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소년은 영화 '쿼바디스'를 상영하는 극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숨죽인 채 스크린에 빠지게 된다. 화면에 가득 찼던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스런 모습과 신음, 끝없는 인내, 그런 가운데도 신을 찬양하며 읊조리던 찬송가 소리에서 느꼈던 안타까움과 슬픔은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5년 전, 나를 성당으로 이끈 것은 주변 환경이었다. 평소 존경하고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이 차례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닌가. 개신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팔순의 노모가 갑자기 영세를 받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노모는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조용히 묵상을 하면 외로움이 걷히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며 그 순간의 신비를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 중이시던 장모님은 어느 날 나에게 "영세를 받게 됐으니 축하해 달라"고 해 더더욱 놀랐다. 장모님은 평소 종교에 대한 불신이 컸고,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는 말을 자주 해오던 터였다.

그런 데다 경남 산청에서 유기농 쌀을 재배해 '성공한 귀향인'으로 유명세를 타던 외숙부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나의 아내 또한 성당에서 교리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주님을 따라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다.

교리공부 시간에 수녀님으로부터 이 땅에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가톨릭이 전래되고, 신유박해 때 우리의 선조 신앙인들이 겪었던 순교의 역사를 들으면서 30년 전 소설과 영화로 접했던 '쿼바디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무엇보다 순교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생애는 감동으로 다가왔다. '형장에서 목을 잘리기 직전 손을 크게 벌려 십자 성호를 크게 긋고는 조용히 다시 형장에 엎드렸다'는 아우구스티노의 용기를 들을 때는 감정이 울컥해졌다.

그 조카사위 황사영. 그는 27세라는 젊디젊은 나이에 신유박해의 전말을 베이징 주교에게 알리기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39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진행 중이다. 신부님을 통해, 대부님을 통해,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를 통해, 신앙학교를 통해, 교우회를 통해 부족한 나를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시는 중이다.

위해 백서를 작성했다가 붙잡혔다. 과거에 급제해 출세가 보장된 길을 버리고, 갖은 배교의 유혹을 거부하다 끝내 온 몸이 찢기는 능지처참를 당한다. 순교 후 가족도 모두 오지와 섬으로 뿔뿔이 흩어졌으니 얼마나 가혹한 가족사인가.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도대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당당히 천주교 신자라고 고백하며 목숨을 바친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흔히들 하느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육체가 받는 고통은 잠시일 뿐, 그들은 곧 하느님을 만난다는 기쁨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믿음에 자신이 없는 나 같은 예비신자에게 그것은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해 주는 답이 되지는 못했다. 약간만 마음을 바꾸었더라면 멸문지화를 면하고 자신의 안위가 유지되었을 텐데.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넓은 아량을 베풀지 않으셨던가. 하물며 한없이 나약하고 불쌍한 어린 양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잠시 다른 길을 밟는 죄쯤이야.

영세를 받던 날, 나는 주님을 향한 지금의 마음이 변치 않고 영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귀한 신앙생활을 누리도록 해 주신 신앙의 선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묵상에 담았다. 순교자들이 보여주신 그 큰 용기를 이 어린 양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진행 중이다. 신부님을 통해, 대부님을 통해,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를 통해, 신앙학교를 통해, 교우회를 통해 부족한 나를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시는 중이다.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주시며, 때로는 기쁨과 은혜로움으로 단련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든다.

지난주에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옆에 위치한 구산 성지를 찾았다. 김성우 성인과 여덟 분의 순교자가 신앙의 숨결을 지니고 묻히신 거룩한 성지다.

미사를 드리고 나서는 데 성모마리아상 옆 돌기둥에 걸린 현수막의 글귀가 내 눈에 들어왔다.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의 마지막 신앙고백이었다. 내 눈은 한참 동안 그곳에 고정됐다. 글귀는 점점 커져갔다.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할 따름이오."

주님은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은총을 내리고 계신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40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탈핵(탈원전)을 위해 행동합시다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올 여름 전력난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절전을 호소합니다. 그런 와중에 원전에서 사용되는 부품공급을 둘러싼 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국토의 대부분이 방사능으로 오염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문제가 드러난 원전 일부에 대해서는 가동을 중지시키지 않고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모자란다며 원전을 더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원전은 23개에 달합니다. 좁은 국토에 이렇게 많은 원전을 짓다보니, 원전 밀집도는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과연 전력난 때문에 원전을 더 짓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맞는 것일까요?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탈핵(탈원전)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과연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전기가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봄이나 가을에는 예비전력이 충분합니다. 문제는 냉 · 난방수요가 몰리는 여름과 겨울입니다. 또한 여름이나 겨울이라고 해서 24시간 전력이 빠듯한 것이 아닙니다. 밤이나 아침에는 전력 예비율이 30%를 넘어갑니다. 문제는 피크타임이라고 불리는 오전, 오후의 몇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력수요가 몰리는 것이 문제라면 원전은 답이 아닙니다. 원전은 한 번 가동하면 아침이나 밤이나 계속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전력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원전을 더 짓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소비지 가까이 지을 수 있고 쉽게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는 가스발전 같은 방식이 일시적인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적합합니다.

인류가 원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60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 지어진 원전 577개 중 3개에서 '폭발' 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초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를 577대 만들었는데 그중 3대가 폭발했다면, 누가 그 자동차를 타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자동차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전은 577개를 지었는데 3개가 폭발한 셈입니다. 게다가 원전사고는 한 번 터지면 100만명이 사망하고 땅과 물이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엄청난 사고입니다.

둘째, 전력난은 결국 수요가 공급보다 빨리 늘어나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수요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수요는 한 해에 10% 늘어날 때가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력공급을 늘리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더 짓고, 석탄화력발전소도 더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전은 위험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내뿜어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전기수요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기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공장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싸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41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원전은 위험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내뿜어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전기수요를 줄이는 것입니다.

게 공급해 왔고, 그것 때문에 산업용 전기수요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수요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공장에서 자가발전(자체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자기 공장에서 쓰는 전기의 30% 이상을 자가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하면 굳이 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대안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태양광, 풍력, 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독일도 전체 전기생산 중 27%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의존도가 30%인 것을 생각하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탈핵(탈원전)을 결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것을 도입하여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를 원가와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매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돈을 모아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기술개발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법을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려면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전기스위치를 끄고 절전형 탭을 이용해 대기전력을 줄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수요가 전체 전기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밖에 안 되지만, 이런 실천이 중요한 이유는 '전기를 의식하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쓰는 전기로 인해 우리의 생존과 미래세대의 행복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책임 있게 살기 위해 '절전'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전은 혼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모임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발전'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동네에서, 그리고 모임에서 '절전소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없애나가는 '탈핵'을 결정하게 만들고, 전기수요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치에서 이런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게 해야 합니다. 국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자체에서도 '탈핵선언'을 하도록 하고 전기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작은 규모로라도 시도해보게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42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한반도 평화와 교류협력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 센터장)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주년이 된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은 여전히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진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3차 핵실험, 그리고 핵보유국 지위 주장 등으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남과 북 그리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와중에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마저 거의 중단되면서 한반도의 냉전의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 정권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났다. 북한 내륙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조치로 문을 닫았으며, 특히 경협사업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최근 잠정폐쇄돼 남북경협 사업은 3년 만에 사실상 '올스톱' 됐다.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까지 막혔다.

남북경협사업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남북한 교역문호를 개방하고 남북 간 교역을 민족 내부교역으로 규정한 7·7선언이 나오면서 정책적 기틀이 마련됐다.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증진될 경우 그만큼 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이 진전되면서 개성, 금강산 지역에서 북한 군사력의 후방배치, 군사직통전화 개통 등 군사적 분야의 협력이 이뤄지기도 했다.

2008년 29억9000만달러였던 남북 간 교역액은 5·24조치가 있었던 2010년 19억1000만달러로 급감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4월의 남북 간 교역액은 2343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의 같은 기간 평균교역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5·24조치 이후 북한 진출 기업들이 사실상 모두 문을 닫은 상태인 것과 개성공단이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 간 교역액은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남측에 대한 군사도발 위협을 가중시켜 오던 분위기에서 정치적 이유를 들며 개성공단에서의 북측 근로자들을 철수시키는 등 애당초 개성공단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 때문에 남북한 간 정치적인 안정과 경협사업을 정치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신뢰가 충분히 축적돼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한 남북경협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남북 관계 단절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남북갈등 못지않은 남남갈등이다. 북한의 고립상황이 깊어지고 남북관계 단절이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43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남북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서로의 오랜 불신과 오해를 풀어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류하고 소통해 나가다 보면 서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래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더 심화되면서 북한이 선의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 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진정성을 평가받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불신과 적대의 구조는 비생산적인 대립과 정쟁을 유발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즈니스 목적으로 북한과 교류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북한과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은 종북 혹은 친북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우리 사회 내부의 이런 인식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와 나아가 통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상대방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노력 없이, 그리고 마음속의 냉전 의식이 존재하는 한 남북 간의 화해와 일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류가 막히면 막힐수록 남남갈등은 더욱 커진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계와 민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서로의 오랜 불신과 오해를 풀어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류하고 소통해 나가다 보면 서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접촉과 교류협력의 결실을 조급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인내심이 수반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교류가 단절된 후 다시 시작되는 접촉과 교류협력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 요소가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을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교류협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장차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44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2013 DMZ 평화의 길



▲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청하는 '참회와 속죄의 성당' 봉헌식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3년이 되는 지난 6월 25일 거행했다. (사진제공 : 가톨릭신문)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 형제였던 남과 북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연에 의지해 아름다운 생명을 키워낸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는 언젠가 찾아올 한반도의 평화를 보여준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이기헌 주교, 이하 민화위)가 분단 3세대인 청소년들과 함께 한국전쟁이 끝난 7월 27일을 전후로 DMZ를 찾는다.

DMZ 일대를 순례하는 '2013 DMZ 평화의 길'은 민화위가 준비한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이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달인 지난 6월 심포지엄과 특별 기도운동을 전개한 민화위는 분단 2세대와 3세대를 아우르며,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며 평화의 땅인 DMZ를 걸으면서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체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기도 파주시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출정식을 갖고 7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순례를 시작한 참가자들은 6박7일간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지역을 아우르는 DMZ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순례한다. 민화위 위원장 이기헌 주교도 순례길 일부 구간에 동참해 참가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기헌 주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달을 앞두고 가톨릭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남북통일에 회의적인 젊은이들에게 통일이 우리의 희망찬 미래임을 알리고 한 형제로서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화위는 또 올 1월 서울대교구에서 의정부교구로 관리책임이 이관된 '참회와 속죄의 성당' 봉헌식을 한국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 진행했다. 이날 봉헌식은 전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 의정부교구장 이기헌 주교 등이 공동 집전했다.

민화위 총무 이은형 신부는 "분단 2세대와 3세대가 평화에 대한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세대를 뛰어넘어 고리기도와 DMZ 평화의 길 순례를 비롯한 평화를 기원하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 편집위원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45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평화를 구하는 기도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46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존 에버렛 밀레이– '부모집에 있는 그리스도



존 에버렛 밀레이의 '부모 집에 있는 그리스도'
1848년. 캔버스 위에 유화, 86.7 x 139.7cm 테이트 갤러리, 런던.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47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서양에서 성서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실제 삶의 모습보다 더 고상하고 우아하고 숭고하게 꾸며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예술가들이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였다. 이런 예술가들은 하느님 말씀과 그 세계를 더욱 지고하게 표현하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 이미지를 선택했던 사람들로,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왕립미술원이 추앙하는 최고 존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일군의 젊은 예술가들은 이러한 인위적으로 이상화된 이미지로 드러난 성서의 세계에 반기를 든다. 성서의 이미지는 아무 꾸밈이 없이 진정 인간의 이미지로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는 하느님 말씀이 너무 고상해서 우리와 단절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신념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그림 속 이미지는 실제 인간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 삶 속에 깃든 하느님의 은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모호하고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화풍을 고집한 예술가들을 '라파엘전파' 라고 부르며, 그 대표적인 작가 중 하나가 존 에버릿 밀레이(John Everett Millais. 1829~1896)이며, 이런 조형적 신념이 드러난 그림이 '부모 집에 있는 그리스도' 이다.

밀레이는 성서의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루카 2, 40)라는 대목을 표현함에 있어, 그 성장 과정을 성스러운 이미지보다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을 담고 있다. 바로 목수 아버지가 일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아름답거나 고상하지 않고, 이 공간을 점유한 사람들도 하루하루가 궁핍한 사람들 그대로이다.

그러나 이 그림은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의 실제 삶의 공간과 현실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에 하느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의 정중앙에는 못에 찔려 우는 아이를 엄마가 달래고 있다. 엄마는 아이의 고통이 무척 안쓰러운 마리아의 모습이다. 그런데 아이의 찔린 손에서 피가 흘러 발등에 묻어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목수 일을 하던 아버지 요셉은 일을 멈추고 아들의 손을 살피고 있으며, 할머니 안나 역시 손자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오른편에는 한 소년이 다친 손을 닦고 치료할 물을 담아 들고 오는데, 한발 한발 내디디는 모습이 참으로 조심스럽기 짝이 없다. 거친 낙타 가죽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세례자 요한이며, 수반의 물은 세례수가 아닐까? 맞은편 일에 열중한 사내는 그리스도의 존재에 관심이 없는 자로, 지키기 어려운 신앙의 시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벽의 삼각자는 삼위일체를, 사다리는 야곱의 사다리, 그 위에 걸터앉은 비둘기는 성령이다. 나머지 도구들은 양 옆의 나무판자들과 아울러 십자가를 만드는 도구로 보인다.

우리 일상에서 참된 신앙을 뒤로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짜는 일이라는 것인가? 그래서 왼쪽의 널빤지 앞의 짜다가 그만둔 바구니의 거친 줄기는 예수에게 태형을 가하는 회초리를 닮았다.

오른편의 창가에 놓인 등잔은 겸허함을 나타내며, 왼쪽 외부 공간의 양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그 앞에 붉은 꽃은 예수가 이들을 위해 흘릴 피의 상징이다.

이처럼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일상. 돌아보면 궁핍하고 가난하며, 남의 시선도 동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갑고 냉정한 현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련 속에도 늘 하느님의 따스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밀레이는 이 작품을 통해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세태를 비판하며, 참된 의미와 진실한 가치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묻고 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48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파티마 성모 발현지

‘주님의 종 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류정호 데레로사(가톨릭생명연구소 연구위원 · 작가)

아름다움이란 들꽃의 화르르한 웃음 같은 것이라 여길 때였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말을 전하는 눈빛의 여인 사진을 생일선물로 받았다.

친구는 세상의 이치로 가늠할 수 없는, 여인의 기적은 말하지 않았다. 다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노라, 액자에 넣은 사진만 건넸을 뿐이었다.

꽃들이 별처럼 피어나고, 먼 향기가 다가오듯 그윽한 눈길의 여인은 책상머리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건네곤 했다.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된 까닭에는 사진 속 여인의 덕이 컸으리라 믿곤 한다. 그 여인의 이름은 ‘파티마의 성모님’이다.

성당에 다니게 된 후, 극진한 아름다움 속의 여인이 ‘동정녀로 잉태’한 성모님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한마디 답으로 어찌 원죄 없는 잉태가 가능한가. 납득할 수 없는 신비요, 순명이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느님 모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믿음’ 하나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찬 성경 말씀이 어디 한 둘인가. 그런 중에 부대끼는 사람들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내게 성모님의 절대 순명은 가히 충격이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책상머리의 벗인 ‘파티마의 성모님’은 이미 내게 깊이 들어와 있었다.

내가 다니는 성당의 성모발현 성지순례팀을 따라 마침내 포르투갈에 왔다. 사진 속에서 넘겨짚던 수많은 이야기를 이제는 들을 수 있을까, 두근두근 설렘을 눈치라도 챈 걸까, 파티마로 달리는 차창에 빗방울이 후드득거린다. 잿빛 유칼립투스 나무도 머리채를 파르르 떨며 따랐다. 어찌하여 가난한 산골의 목동 아이들에게 그리고 무엇이 그리도 안타까워 나타나셨는지, 그 까닭의 꼬리도 함께 달렸다.

빗속에 도착한 파티마는 떡갈나무 아래 금작화가 노랗게 피어나던 산골마을이 아니다. 덥고 축축한 초여름, 세 아이들이 양을 몰던 이낀 낀 올리브나무 숲길을 기대했음인가. 눈길 한번으로 스치기에 너무 광활한 광장이다. 하늘만큼 장엄한 구름 아래 대광장은 의식의 전야인 듯 경건한 숨을 고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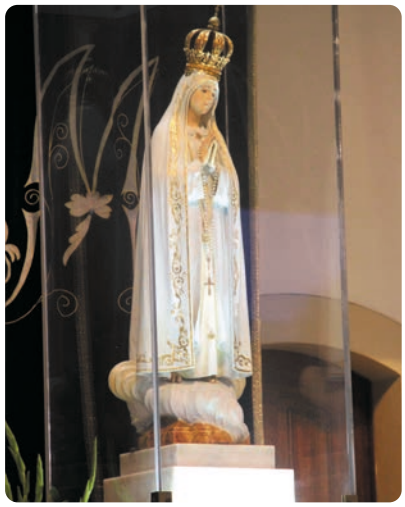
광장의 한편에 둘러선 파티마 대성전은 하늘의 성이 저러리라 싶을 만큼 거룩한 위용이다. 저격을 예고했던 파티마의 성모님이 자신을 구했다며, 총알을 성모님 왕관에 봉헌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추적이는 빗속에 어깨를 굽히었다. 그 뒤로 십자가가 하늘에 닿은 양 높다. 파티마 대성전과 대칭 구도로 선 교황 기념관 성당이 역시 광장의 한쪽 병풍으로 너르다.

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서야 기념관 성당에서 파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49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 파티마 성모님이 발현한 세 어린이



▲ 성모님 발현 소성당의 파티마 성모

티마 대성전까지 선을 그은 길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묵주를 한 손에 들고 무릎걸음으로 긴 길을 따르는 이들에 시선이 멈추었다.

묵주기도를 마치고 집짓기 놀이하던 열 살의 루치아, 일곱 살의 히아친타, 아홉 살의 프란치스코에게 어느 곳에서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성모님이 나타나셨다.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인류가 계속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 드린다면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러시아를 내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와 티없이 깨끗하신 마리아의 성심께 대한 신심을 바치고, 고백 성사와 성체를 영하라. 결국 성모 신심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묵주 기도를 바칠 때 매 신비가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며, 특히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라는 구원송도 함께 바치라고 하셨다. 바로 '파티마의 비밀' 이다.

아이들은 성모님의 기도와 고행을 당부 받은 뒤로 굵은 밧줄을 맨살의 허리에 단단히 묶고 다니고, 더운 날에 물을 마시지 않는 등 고행을 위한 여러 일들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개인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묵주 기도를 자주 바치는 것을 가장 중시했다고 한다. 한눈에 따라잡을 수 없는 드넓은 파티마 광장 길에 묵주 한 알, 무릎 한 걸음으로 드리는 온몸의 보속이 찡하다. 젖은 빗길에 엎디는 그들에게, 바라보는 내 무릎마저 절여오는 고행의 묵주기도다.

푸른 어둠이 짙어지자 대성전 종탑에서 종이 울리고. 성모님 발현 소성당에 세계 각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각 나라의 언어로 아뢰는 성모송이 제대 위 성모님의 두 손에 모아진 후, 짙은 밤으로 퍼져나갔다. 온 나라의 성모송이 끝나자 간절한 염원의 빛이 촛불로 전해지고, 제대 위의 성모님이 촛불의 행렬 속에 내려왔다.

"반짝거리는 물로 채워진 수정 유리보다 더 강하고 밝은 빛을 쏟아내는 찬란한 옷이, 발밑까지 늘어뜨려졌으며, 그 경계 부분은 별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나이는 열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며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천상의 빛으로 가득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인지 생각에 잠긴 듯한 슬픔도 배어 있었다. 가늘고 섬세한 그 부인의 손은 진주 같은 것으로 엮어진 묵주를 들고서 가슴 부분에서 서로 맞잡고 있었다."라고 루치아가 회상하던 모습의 성모님이 앞서고, 아베 마리아를 부르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50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 파티마 대 성전



▲ 파티마 성지의 고광장에서 무릎걸음으로 기도하는 행렬

며 뒤를 따르는 촛불의 행렬이다.

러시아를 봉헌하라던 그때로부터 백 년이 흐른 지금, 대다수 방문객들은 세계 유일 분단국이자 전운이 감도는 코리아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다. 정작 나는 한 민족 두 나라의 우리 땅을 위한 기도를 몇 번이나 했던가. 일본 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을 치른 내 어머니도 기도 중에 세계 평화를 간구하지는 않았다. 내 어머니에게 세계는 오로지 자식이었다. 기도 시작과 끝에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곡진히 엎드리던 내 어머니였다. 매일 아침 촛불 아래 기도 드리던 어머니의 염원이 촛불 행렬과 같은 길을 내어, 지금 내가 파티마의 성모님을 알현하는 것이리라. 그리고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매일 기도하라, 이르던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현장에 있는 것일 테다.

기도란 본능으로 집착하는 안위를 아뢰는 일이 아니다. 흑백의 사진 속 양치기 세 아이들은 보잘것없이 초라하다. 가난한 만큼 바람도 소박하고, 남루한 만큼 티 없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어머니는 나타나셨다. 아이들은 성모님께서 하라고 이르는 대로 온전히 따랐다. 기도도 믿음도 마름질하지 않고,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라던 성모님의 순명을 본받았다.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구호를 앞에 두고, 복권 당첨되듯 이로운 것만 바람으로 아뢰며 기도를 가장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파티마의 성모님조차 왜곡된 아름다움의 척도로 재단하지 않았는가. 아름다움의 표상인 양 책상머리에 모셔두고 관념 속 아름다움으로 지켜봐온 파티마의 성모님이다. 아름다움은 관념이 아니다. 지극한 사랑이 차오를 때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고 했다. 하느님의 모상이며 생명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받은 인간이 가책없이 죄를 짓고 또 짓자, 하느님의 맘을 헤아린 어머니가 끝내 나타나신 것이다. 세 아이들을 믿지 못하고 감금 유괴하며 비밀 설토를 협박하던 사람들에게 '묵주기도의 모후' 로 '태양의 기적' 을 보여주셨다.

기적을 지켜보고서야 무릎을 꿇은 군중의 파티마 광장이다. 이윽고 촛불 행렬이 잦아든 성모님 발현 소성당에 몇 명은 파티마의 성모님 앞에서, 몇 명은 남은 촛불 곁에서 서성인다. 이 밤이 지나고 새아침이 오도록 세상 어디선가 묵주 알을 굴리며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묵주의 기도야말로 세상의 평화를 이어가는 힘이 아닌가.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느님의 맘을 헤아린 파티마 성모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곡진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오래전 아름다움으로 만난 여인은 이제, 확실한 언어로 내게 이른다.

"기도로 순명하라." 아침마다 기도를 드렸던 내 어머니처럼, 묵주기도로 새아침을 맞으리라. 그리고 낮은 이의 눈길로 가장 아름다운 파티마 성모님의 순명과 사랑을 닮으리라, 묵주를 두 손에 모으는 파티마의 밤이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51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하느님이 주신 달란트

김상아 미카엘라(경향신문 온라인 방송 아나운서)

일에, 사람에 지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고생을 하나? 낯선 곳으로 훌쩍 떠나버리거나, 혹은 얽히고설킨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는 좋은 사람들만 만나며 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날, 잘 아는 수녀님이 생각나 불쑥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 주시면서 '안토니오 신부님의 치유피정, 아주 특별한 순간' 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제 입에서는 "수녀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수없이 흘러 나왔습니다.

안토니오 신부님은 사람 앞에 나서는 일을 무척 어려워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신부님을 치유 피정에 초대하셨고, 그분을 통해 일을 하시고자 그분의 두려움을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참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게 하느님이 주신 유일한 달란트가 좋은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좋은 목소리와 함께 사람들 앞에 설 때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은 제게 연약한 마음을 세트로 주셔서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또 한편으로는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그래서 한때는 모든 일을 접고, 그저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고스란히 돌려 드리는 어리석은 백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 머리를 쳤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삶이 여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저를 단련시키며, 자유를 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쌓여 갈수록 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됩니다.

"이 일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주어진 일을 잘 해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기도와 함께 시작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의 뜻대로 멋지게 해 낼 수 있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 하느님을 목자로 둔 양입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 평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처럼 저의 마음은 당신 안에 쉬기까지 편치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제게 풀어도 풀어도 끝이 없는 보물상자입니다. 모든 일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 앞으로 어떤 계획을 절 위해 세워 놓으셨을지? 때론 설레기까지 합니다.

직장 선배로부터 '평신도' 원고 청탁을 받고 "하느님 글이라뇨? 제가요? 참! 해 볼게요, 도와주셔야 해요."

전 뭐든 합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면. 다만, 한 가지 걱정이라면, 제가 당신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제 의지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52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숫자 '0' · 비움(kenosis)과 충만(pleroma)

명백훈 프란치스코(수학자)



아직
환희의 숫자는 완성되지 않았다
영광의 아버지
오직 침묵으로
빛나는 숫자의 합에
우리의 동경을 더해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황금의 숫자를 비우소서

아직 세상은 고요하고 이슬이 반짝일 뿐입니다. 밤새 세상을 지켜준 별들이 점점 더 엷어져, 민물에 잠기는 해변같이 새벽빛의 물속에 잠겨 점점 더 약해져가는 눈빛을 보내다가 마치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습을 감춥니다. 장밋빛 섬광이 동쪽 하늘의 비취색 비단을 양쪽으로 갈라놓자, 숨결 같은 바람이 산과 들판을 지나며 "잠에서 깨어나라. 새 날이 밝았다" 하고 아르페지오의 선율을 곁들인 찬양을 시작합니다. 밤의 수의 밑에서 꿈틀거리며 세상은 영원한 아름다움을 되찾고, '無'에서 돌아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동쪽의 땅과 맑은 하늘 사이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불덩어리로 인해 일종의 사다리가 놓여있는 듯합니다. 사다리의 양끝에는 침묵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력을 가진 말과 글일지라도 그저 중간 계단일 뿐, 거기에는 발을 아주 가볍게 얹을 수 있을 뿐입니다. 오직 침묵만이 왜곡됨이 없으니, 침묵은 알파요 오메가며 동시에 無와 有일 것입니다. 無를 뜻하는 단어 아인(ain)이 '나는 존재한다(I Am)'는 뜻인 아니(ani)와 같은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음은 의미가 깊습니다. 말씀에 의해 無에서 有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신 하느님의 인자(仁慈)께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과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문을 통해 빈 무덤과 구원이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13세기경,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예수살렘에 당도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세주의 무덤이 정말로 '비어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합니다. 교회와 서구는 오랜 잠에서 깨어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표현과 "그렇게 해서 인류는 죽음의 마비상태에서 깨어났다"라는 훌륭한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교황 실베스텔Ⅱ세가 도입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숫자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53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0' 이 서구에 도입됩니다. '비어 있는 무덤' 을 체험하는 것과 성서의 구절을 일치시키는 것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 혁명적인 충격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는 무덤' 은 없음과 공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에 이어 마침내 없음과 공백이 쭉 존재해 왔다는 생각 자체와 일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질서와 無가 의미하는 공백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없음과 비어 있음' 이 가능하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용인된다면 '0' 의 개념 역시 그러할 것이며, 동시에 33과 303을 구별하는 위치적 명수법도 자연스럽게 그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0' 이라는 기이한 숫자를 더 이상 사탄의 창조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텅 빈 자기 비움(kenosis)과 충만(pleroma)으로서 그리스도의 표상과 일치시킵니다. 2세기경에 순교하신 성 엠마누엘(Emmanuel) 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무서운 것을 보았다. 서재에 들어가니 조카가 소리를 내지 않고 책을 읽고 있었다." 당시 묵독(默讀)은 악마의 독서법이었으며, 사람들에게 묵독이 허용된 시기는 '0' 가 도입되는 12세기에 이르러서라고 합니다.

세상에 아로새겨진 숫자를 통해 하느님의 지혜가 드러난다.
아우구스티누스

9세기 무렵의 희곡 작가인 간더사임의 로비타(Hrovita) 수녀의 희곡 사피엔티아(Sapientia)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물에 대하여 그 수와 크기, 무게를 알맞게 정하셨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사람의 나이에 알맞도록 정리정돈하셨으며, 더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생생한 기적이 드러나는 수학을 창조하셨다."

과연 숫자의 속성은 속임수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거짓은 숫자의 본성으로 살펴 볼 때 가장 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신비를 감지하고, 조화를 규명하며, 섭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라져가는 사물들 뒤에 숨겨진 숫자의 관계와 영원한 조화를 통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숫자는 단순히 미적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비밀스럽게 배열되어 있기도 한 창조와 구원의 질서와 필연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0' 은 '없음' 을 뜻하지만 역설적으로 '영원히 있음' 을 상징합니다. 숫자의 개념과 함께 철학적 의미로 존재합니다. 숫자, '0' 즉 '비어 있는 무덤' 이 상기시키는 수난과 부활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방법에 있어 어떠한 한계와 제약 없이 구원 사업을 완성하십니다.

시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공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즉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까지든지 전파됩니다.

방법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자(仁慈)이신 하느님의 방식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결코 제약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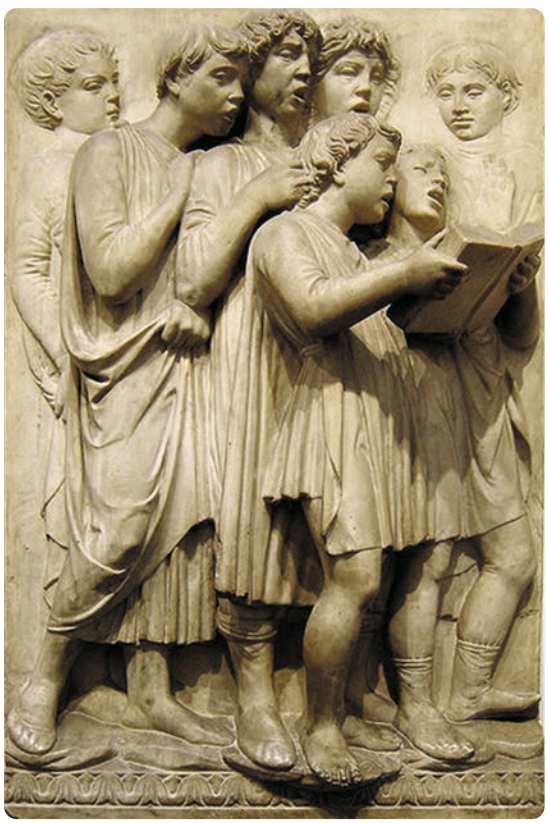
두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목자이며 나침반인 복음의 핵심인 숫자 '0' ('비어 있는 무덤')의 신비를 상기하며, 하느님의 인자(仁慈)와 구원의 바람을 노래해 봅니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54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한 마음, 한 목소리



양인용 아가다(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박사과정)



▲ 피렌체 르네상스 양식을 개척한 조각가 루카 델라 로비아가 성당 기둥과 벽면에 조각한 '음악연습'의 한 장면

얼마 전 신문지상에서 매우 뜨거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5·18 민주화 기념식에서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合唱)으로 부를 것이냐, 제창(齊唱)으로 부를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합창단이 있어서 합창으로 부르면 참석한 사람들은 구경만 해도 되고, 제창을 하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불러야 하므로, 합창인지 제창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행사에서 느닷없이 불거진 합창-제창 논란에 혀를 끌끌 차다가 제 생각은 엉뚱하게도 본당 성가대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합창-제창 문제로 갑자기 건너뛰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합창과 제창의 차이를 짚어봅시다. 합창이냐, 제창이냐는 합창단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성부로 나뉘어 화성을 이루며 부르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이 함께 동일한 멜로디를 부르느냐에 따라 전자를 합창, 후자를 제창이라고 하죠. 즉 화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젠데요. 남녀 혼성 4부로 구성된 본당 성가대에게 성가를 화음 없이 제창, 그러니까 '유니즌으로'(in unison) 불러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성가대원으로서 강한 자부심이 있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성가대가 일반 신자와 똑같이 멜로디를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55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부를 수 있어?', '음악이 단조로워질 텐데' 하는 눈빛으로 쏘아보십니다. 평소 자신의 노래 실력이 좀 부족하다 생각했던 분들은 '혹시 내가 뭘 잘못 했나?' 하는 불안한 표정이시고요. 소프라노가 아닌 다른 파트를 맡고 계신 분들은 '사실 소프라노 멜로디는 잘 모르는데…' 하며 걱정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늘 하던 자신의 파트 곡조로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자가 4부 합창이 아닌 유니즌으로 성가를 부르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가대가 충분히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성당의 공간이나 음향 상태, 성가대의 전체적이 음량을 고려해 단성부 제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당 성가대는 전례 안에서 신자 전체를 결합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가대는 성가대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마음을 다해 성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이끌고 도와주는 데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맞지 않는 화음으로, 충분히 들리지 않는 음량으로 굳이 4부 합창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전례를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만들지도 못하고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으니까요.

단성부로 부른다고 해서 성가대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성부 제창은 그만의 고유한 힘과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는 단선율만으로 충분한 훌륭한 음악 전통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레고리오 성가'(Gregorian Chant)라는 천년 역사의 음악 유산이지요. 접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레고리오 성가는 선율 하나에 음역도 넓지 않아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아름답게 부르기는 쉽지 않은 노래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지 않으면 어긋나기가 쉬운 노래인 것이죠.

그레고리오 성가와는 또 다르지만, 4부 성가를 단성부로 제창하는 것 역시 마냥 쉽고 편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개성을 지닌 신자들의 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선 성가대가 중심을 잃지 않고 가장 모범적인 정확한 선율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가대 전원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목소리로 노래해야 하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4부 합창 못지않은 충분한 연습과 무엇보다도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결국 합창이냐, 제창이냐, 노래를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의 문제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마음을 다해 그 노래 안에서 기도를 하느냐가 아닌가 싶습니다. 12세기의 여성 음악가 힐데가르트 폰 빙엔(Hildegard von Bingen)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느님 숨결 위의 깃털'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성가도 없을 것입니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56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국제 가톨릭 교우회의 날'을 맞아 미사와 기도 봉헌



한국평협은 3월 19일 '우눔옴네스(Unum Omnes 국제 가톨릭 교우회)의 날'을 맞아 미사와 기도를 봉헌했다. '우눔옴네스'는 최근 교회와 사회 안에서 움츠러드는 남성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미사' '기도' '복음화'를 주제로 한 묵상, 교회 매스컴에 대한 홍보 등에 매진하기로 했다.

우눔옴네스(Unum Omnes)는 라틴어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뜻으로 1948년 설립된 국제 가톨릭 단체이며, 교황청 인준, 유엔(UN) 옵서버 자격의 비정부기구(NGO)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생명의 가치를 인류에게 전하는 교육활동과 사도직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제1차 상임위원회의 마산 가톨릭교육관에서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손희송)는 마산평협(회장 김황성, 담당사제 강영구) 주관으로 지난 4월 26일 마산교구 가톨릭교육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2013년도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와 성 빈첸시오 아바오로회 한국이사회를 상임단체로 추가하고, 가톨릭대상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신앙생활 체험수기' 공모사업안을 확정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임원연수 개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손희송)는 지난 4월 5일 서울 꾸르실료회관에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이라는 주제로 서울평협의 임원과 위원 약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의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새롭게 개정된 회칙과 그에 따라 개편된 조직의 변화 이후 서울평협의 모든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어서 더욱 뜻깊었다.

회원단체 지원사업

서울평협은 지난 2월 공지를 통해 '2013년도 회원단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회원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해 14개 단체, 16건의 사업을 심사해 '고유사업부문', '운영부문', '새로운복음화부문' 등 3개 부문에 총 13개 단체, 14건의 사업에 대해 총 5천2백만여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4월 25일 지원금을 전달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서울평협의 회원단체 지원사업은 그간 간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57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혈적인 요청에 의해 부조 성격으로만 지원되던 단체 지원의 형식에서 벗어나 특정한 사업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신청하게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하여 효과를 높였다. 특히 올해 '신앙의 해'를 맞아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단체의 활동도 지원했다.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 다음과 같다. ◆고유사업부문 △가톨릭언론인협의회 △북방선교회 △가톨릭마라톤동호회 △사진가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가톨릭노동장년회 △여성연합회 ◆운영부문 △네오까떼꾸메나도 길 △시각장애인선교회 △아버지학교 △약사회 △운전기사회 △미바회 ◆새로운복음화부문 △네오까떼꾸메나도 길

'신앙의 해' 제주 성지순례

서울평협은 지난 5월 16~18일 2박3일간 평협 임원과 일반신청자로 구성된 80명의 순례단을 꾸려 제주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이번 성지순례는 '신앙의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순교 선조의 삶과 신앙을 조명하며 그분들의 모범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자는 취지로 순교자 황사영의 아내 정난주 마리아와 아들 황경한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하는 여정으로 마련됐다.

2013년도 '공의회학교' 수료식

서울평협은 3월 4일부터 14주 과정으로 진행해 온 '공의회학교' 수료미사를 지난 6월 10일에 봉헌했다. 이날 수료미사에서는 서울 레지오마리애 소속 회원들과 일반 신자 등 총 132명이 수료했다. 수료미사 주례를 맡은 손희송 신부는 강론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보길 바라며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신앙의 해를 맞아 공의회 문헌을 공부할 것을 강조했다"면서 "공의회학교를 통해 공의회 문헌을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자 중 개근을 한 73명에 대해서는 축하의 선물이 증정되기도 했다. 2014년 공의회학교는 내년 3월부터 14주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본당회장단 연수회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이명수, 담당사제 김명현)은 3월 2~3일 이틀에 걸쳐 본당 회장단 · 단체장 연수를 개최했다. 교구 내 14개 지구 소속 91개 본당 및 단체에서 2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에서는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라'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현대사회 청소년 교육 및 국가 정책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의 김종수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58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주교의 강의와 '복수동성당의 청소년 사목' 사례 발표, 전민동성당 청소년 분과장의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주는 본당 공동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또한 '교구 청소년사목국의 업무와 청소년사목의 중요성'이라는 주제 강의와 질의 · 응답 시간을 가지고 교구에서 행하는 청소년사목의 종류와 어떻게 본당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2대 평협 피정

대전평협은 2월 24일 대전 갑동에 위치한 꼰솔라따수도원에서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의 소명과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교구 사목기획국장 및 차장, 수녀, 평협 22대 상임위원 등이 참석해 일일 피정을 했다.



지구회장 및 평협 상임위원 분과장 회의

대전평협은 4월 20일 대전 탄방동성당에서 담당사제와 지구회장 및 평협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지구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2대 평협이 시작하면서 교구와 평협. 14개 지구. 단체의 연간 활동 계획을 '2013년 연간 사목계획서' 책자로 엮어 서로의 행사에 동참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배포했다. 또 교구 14개 지구와 평협의 연계 활성화 방안과 '2013년 카리타스 대축제'를 청소년사목국의 'A,KYD(아시아청년대회) 발대식'과 연계해 실시하는 데 따른 논의가 있었다.



논산지구 한생명 운동

대전평협은 4월 27일 부창동성당에서 논산지구 한생명(헌혈 · 장기기증)운동을 실시했다. 이원순 논산지구장 신부는 한생명 운동이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교구 평협과 친선 만남

6월 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서철 신부 및 상임위원, 대전교구 평협 김명현 신부, 수녀 및 상임위원이 함께한 가운데 친선 만남의 행사를 가졌다. 두 교구의 담당사제인 김명현 신부와 서철 신부는 "청주교구와 대전교구는 서로 인접해 있으며 같은 사투리를 쓰는 지역이다. 신학생들도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한다. 이런 만남의 장이 계속 이어져 하느님 안에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며 인사를 나누었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59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3 상반기 총회장 연수 개최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이래수, 담당사제 문희종)는 2월 23~24일 수원교구 영성관에서 본당 총회장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상반기 총회장 연수를 개최하고, 강의와 미사 등을 통해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루카 17,10)'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는 △'신앙의 해' 를 맞아 영적쇄신을 위한 '믿음이란?' (분당요한본당 주임 방효익 신부) △교구 대리구제도를 시행하면서 변화에 따른 대리구제도(개정본) 설명(광주본당 주임 김길민 신부) △교구 희년과 신앙의 해 기념행사 및 교구 공지사항(교구 복음화국장 문희종 신부) △'청소년 사목지침' 에 따른 새 복음화 건의안(교구 청소년국장 이건복 신부) 등의 강의와 교구장 이용훈 주교의 파견미사로 진행됐다.

2013 사도직단체 연수 및 사목방문



수원평협은 3월 9일 교구청 대강당에서 교구 단체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사도직단체연수 및 사목방문을 개최했다. '신앙의 해' 영성운동에 대한 신성남 신부의 강의, 수원교구 대리구제도 개정본 설명이 이어졌다. 문희종 신부는 수원교구 설정 50주년 및 신앙의 해 기념행사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사목방문에서 총대리 이성효 주교는 각 단체 회원들이 신심생활과 활동을 균형 있게 하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단체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것을 주의하고 특히 영적쇄신을 위하여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축구선교연합회, 수원교구장배 축구대회



수원교구 축구선교연합회는 4월 14일 18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시축구센터에서 '제12회 수원교구장배 축구대회' 를 개최했다. 아침부터 비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예선전이 시작됐다. 화서동 본당과 오전동 본당의 결선 경기는 승부차기로 우승을 가려 3대1로 오전동 본당이 우승을 차지했다. 선교리그에서는 평택성당이 우승을, 준우승은 성복동성당이 차지했다.

파티마 세계사도직, 한반도 통일기원 미사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은 5월 11일 죽산성지에서 '파티마 성모발현 제96주년 기념 및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미사' 를 수원교구 각 본당의 셀(Cell) 회원과 일반신자 1400여 명이 참석한 가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60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운데 봉헌했다. 미사는 총대리 이성효 주교 주례와 김화태 신부, 노성호 신부를 비롯한 교구 사제단이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했다.

이성효 주교는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가 구원에 희망을 두고 있다면, 성모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 그 희망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마라톤동호회, 나눔 걷기 및 마라톤축제

수원교구 마라톤동호회는 5월 17일 미리내성지에서 1300여 명의 교우들이 모여 교구설정 50주년 기념과 교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지원 목적으로 나눔 걷기 및 마라톤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처음으로 5km 걷기 종목이 추가되어 가족 단위의 참가가 많아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이었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많은 교우들과 함께 달리기에 나서 땀으로 흠뻑 젖은 모습으로 5km 골인지점을 통과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13년 부산교구 상임위원 피정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하창식, 담당주교 손삼석)는 5월 11~12일 부산교구 지구별 회장, 평협 상임위원 30명이 경남 밀양 감물 청소년수련원에서 성모님의 살아온 생애처럼 조촐하게 성모의 밤을 치렀다. 손삼석 주교의 성모님 공경에 대한 강론과 감물생태학습관장 유영일 신부의 특강이 있었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단체장 · 본당평협회장단 연수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조광호, 담당사제 서철)는 4월 8일 교구청 회의실에서 교구 활동단체장, 본당 평협 회장 및 교육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신도 도보성지순례, 성경교리경시대회,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묵주기도, 불평 안하기 운동, 삼천운동 등의 안건을 심의해 확정했다. 평신도 도보성지순례를 9월 배티성지에서 실시하고, 제1회 교리경시대회를 본당별 예선을 거쳐 10월 교구청에서 결선을 치르기로 하였으며, 복대동성당에서 처음 시작한 '불평 안하기 운동'을 교구 전체 본당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61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제14회 교구장배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청주평협은 4월 27일 제14회 교구장배 어르신 게이트볼대회를 내덕복지관 게이트볼장에서 15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교구신자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게이트볼을 통하여 단합과 친교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제16회 어울림 한마당



청주평협은 5월 19일 현도 꽃동네대학교에서 각 본당 빈첸시오 아바오로회 회원 및 장애인, 신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은총관과 운동장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고, 주교님 파견미사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청주 · 대전교구 평협 친목 한마당



청주평협은 6월 1일 대전교구 평협과 유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운동장에서 청주 · 대전교구 평협 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친목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합동미사를 시작으로 분과 임원 소개, 족구, 오찬, 발야구 순으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2010년 양 교구의 평협 회장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양 교구 평협이 교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보 교환과 평협 활성화를 위하여 서로 돕자고 합의한 데서 시작하여 올해로 4회째 이어오고 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마산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 승격 25주년 기념행사



마산 레지아는 3월 1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레지아 승격 2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마산 레지아는 1956년 진해 중앙성당에서 하늘의 문 쁘레시디움이 설립해 기초단원 8명으로 출범하여 1971년 7월 꼬미시움으로 승격되고, 1988년 3월 1일 마산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로 승격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5주년 경축미사와 모범 레지오 단원 표창과 축하행사로 진행됐다. 교구장 안명옥 주교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교구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준 레지오 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제각기 다른 삶을 살면서도 성모님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같은 길을 걷는 레지오 단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구 레지아 산하 평의회 간부 및 단원 그리고 광주, 서울, 대구 세나뚜스 간부를 비롯하여 전국 각 교구의 레지아 간부 등 400여 명이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62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참석했다. 박종일 레지아 단장은 '레지아 승격 25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성모님의 군사로서 교회를 위한 밀알이 될 것'을 다짐했다. 모범 단원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허재선 젬마(상평동), 김성명 요셉(고현), 김경자 베네딕타(호계), 최덕성 요한(옥봉동), 구경호 루치아(거창), 조혜영 베로니카(팔용동), 정수상 요한보스코(명서동), 이승규 베드로(완월동), 임소저 마리아(사파동), 허정옥 프란체스카(칠원), 안영화 요셉피나(칠암)



본당회장, 교구단체장 춘계연수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총회장 김황성, 담당사제 강영구)는 2013년 본당회장, 교구단체장 춘계연수를 지난 3월 17일 양덕동본당에서 개최했다. 강영구 신부는 교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회장 및 단체장들을 격려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대해 강의했다. 또 지구별로 순교자 묘역의 성지순례에 대한 토론 내용을 발표하고 실천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제4회를 맞이하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 추천도서를 소개하고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본당에 부착하도록 전달했다. 평협은 4월부터 올해 말까지 독후감 쓰기 공모전을 전개할 예정이며 우수 독후감상은 2014년 교구 평협 정기총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진주지구 여성협의회 도보성지순례

마산교구 여성협의회는 진주지구 여성협의회(회장 이갑순, 담당사제 최봉원) 주관으로 4월 9일 교구장 안명옥 주교와 260명의 회원이 함께 사봉 성지를 도보순례했다. 안명옥 주교는 이날 미사 강론에서 "순교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순례하는 나그네이며, 순례를 통해 하느님을 만납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고 믿음을 통해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만납시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주지구장 최봉원 신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신부와 열다섯 분의 수녀도 함께했다.

마산교구 성모의 밤, 청년성서모임 10주년 기념 음악회

교구 레지아(단장 박종일)는 5월 18일 교육관 성모당에서 성모의 밤 행사와 함께 청년성서모임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성모의 밤 행사는 묵주기도, 기념 음악회와 까떼나, 미사로 진행됐다. 교구장 안명옥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성모님께 보여주신 믿음과 삶을 본받기 위해 성모의 밤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 잘못된 성모신심의 흐름이 생겨났고 성모님을 사랑하는 데 왜곡된 모습으로 드러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63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적과 질병의 치유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성모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성모신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산지구 여성협의회 시복시성 기원 미사 봉헌



여성협의회는 마산지구(회장 최경희, 담당사제 강영구) 주관으로 5월 28일 1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산성당에서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기원 미사를 봉헌했다. 양태현 신부(월영본당 주임)는 미사 강론에서 구한선 타대오 순교자의 약력과 행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순교자들의 삶과 그들의 정신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일상생활 안에서 순교자들의 마음을 되새기자고 말했다. 특히 부모 공경, 하느님 공경을 몸소 증언했던 구한선 순교자에게서 우리는 어머니를 지극히 위하였던 효성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지구 도보 성지순례행사



거제지구 본당 회장단 주관으로 지구 회장단과 마산교구 평협위원 30여 명은 4월 20일 거제 예구공소에 집결하여 공곶이, 서이말 등대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윤봉문(요셉) 순교자를 기리는 도보 순례행사를 가졌다. 이 순례길은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공곶이 일대를 포함하는 해안가를 끼고 있어 순례길의 피로함을 잊게 해 주었다. 마침 이날은 지세포성당 뒷산에 새로 조성 중인 윤봉문 순교자 성지 안의 새 묘역으로 윤 순교자의 묘역 이장과 축성식이 교구장 주교와 지구 사제 및 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됐으며, 도보순례 참가자들은 최종 도착지를 새 묘역으로 함으로써 윤봉문 순교자 성지의 첫 참례자가 됐다. 한편 거제시와 환경부는 이 일대를 '천주교 순례길'이라는 명칭으로 친환경 순례길을 조성해 천주교 순례의 테마 길 복원을 통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공곶이 주변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조망하는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주지구 도보성지순례



신앙의 해를 맞아 진주지구 사목협의회가 주최한 도보 순례가 11개 본당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됐다. 사봉면 무촌리에 있는 정찬문 안토니오 순교자 묘소에서 미사 봉헌을 한 후 점심 도시락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성화를 다짐하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64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 1, 2차 상임위원회 개최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서정권, 담당사제 우원주)는 3월 9일과 6월 8일 각각 1, 2차 상임위원회를 교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최창무 대주교 사제수품 50주년 금경축 축하행사 보고와 2013년도 추진사업인 교구장과 함께 걷는 도보성지순례, 평신도대회 심포지엄, 단체 평협 연수회의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여성위원회 야외행사

광주대교구 여성위원회는 5월 13일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에서 각 본당 여성임원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외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원주 담당사제와 함께 자연을 감상하면서 지구별 소개와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구별 축제 행사 개최

광주대교구 각 지구 평협은 지구별로 한마음축제, 체육대회, 산행 등 다양한 행사를 갖고 소속 본당 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4월 28일 동부지구 한마음 축제를 시작으로 5월 17일 광산지구, 5월 26일 순천지구, 6월 2일 서부지구 한마음체육대회가 각각 진행됐다.



목포지구 제2회 성가합창제

목포지구 평협은 6월 9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성가합창제를 개최했다. 이날 목포지구 내 10개 본당이 다양한 성가들로 참가해 볼거리를 주었고 들꽃국악성가대와 광주가톨릭솔리스트앙상블의 특별출연으로 대회를 더욱 빛내주었다. 이번 행사는 성가를 통해 신앙이 더욱 두터워지는 기회가 되었고 좋은 연례행사로 자리매김을 했다.



운전기사사도회 사순피정, 창립기념행사

운전기사사도회는 3월 20일 까리따스교육관에서 광주, 목포, 순천 사도회 부부 140여 명이 '목 마르다' 라는 주제로 사순피정을 가졌다. 5월 22일에는 평생교육원에서 창립 24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축하미사, 놀이한마당, 전통놀이, 체육경기를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65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가톨릭간호사회 30년사 발간



가톨릭간호사회는 4월 14일 평생교육원에서 회원 140명이 모인 가운데 '생명을 사랑으로 30년!' 이라는 슬로건으로 창립 30주년 감사의 날을 보냈다. 이날 옥현진 주교의 특강과 감사미사, 기념행사, 축제 한마당 등 모두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옛 회원명단, 사진, 회의기록, 소식지 등을 한데 묶어 30년을 기념하는 자료집 '가톨릭간호사회 30년사' 를 발간해 배포했다.

예비신자 교리교사대회

예비신자교리교사회는 4월 27일 함평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130명이 모인 가운데 교리교사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본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비신자 교리교사들이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2013 춘계성령대회



성령쇄신봉사회는 5월 6일 염주대건 · 경환성당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적성장과 활발한 신앙생활을 위해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이사 49,3)라는 주제로 춘계성령대회를 개최하고, 서정혁 신부(청주교구 진천본당 주임)로부터 특강을 들었다.

제29차 교구 울뜨레야



광주대교구 꾸르실료는 6월 6일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1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35)라는 주제로 제29차 교구 울뜨레야를 개최했다. 이날 식전행사로 사물놀이, 기수단 입장, 축하 영상물 상영이 있었고, 우정의 시간, 축하공연, 빛의 예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영적쇄신을 도모했다.

마리아 사업회
끼아라 루빅 선종 5주기 미사

포콜라레 운동의 첫 영신적 불꽃이며 자신의 삶을 통해 이를 증거했던 끼아라 루빅의 선종 5주기 미사가 서울을 비롯한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포콜라레 정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사랑의 불꽃으로 살았던 끼아라 루빅의 생애를 되돌아보았다. 3월 14일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는 오스발도 파딜랴 교황 대사, 염수정 대주교, 최창무 대주교, 유흥식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66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주교가 공동 집전한 추모미사가 봉헌됐다. 많은 참석자 가운데 이해인 수녀는 '다시 사랑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낭송하기도 했다.

포콜라레 회원들 모임

4월 21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회원들을 위한 모임이 있었다. 포콜라레 운동의 공식 명칭인 '마리아사업회' 회원들이 참석해서 창설자 끼아라 루빅이 천국으로 떠난 후 마리아사업회의 현재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비전을 갖기 위해 '오늘날 사업회' 라는 주제로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대구가톨릭대학 바오로관에서 5월 21일 서울에서와 같은 내용의 모임을 영남지역 회원들이 가졌다.



포콜라레 운동 아시아 친구 주교 모임

포콜라레 운동의 일치 영성에 관심 있는 아시아 주교들의 모임이 5월 22~25일 의왕시 라자로 마을 아론의 집에서 열렸다. 한국, 태국, 필리핀, 일본 등 아시아 9개국에서 온 30여 명의 주교들은 '형제 안에 계신 예수' 를 주제로 담화와 묵상을 하고 친교를 나눴다. '포콜라레 운동의 친구 주교들의 모임' 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엥삭 코비타바니즈(태국 방콕대교구장) 대주교는 "새 복음화를 실현하려면 주교 개개인의 영성을 넘어 주교단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염수정 서울대교구장, 강우일 제주교구장, 유흥식 대전교구장, 이병호 전주교구장, 두봉 전 안동교구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감곡 매괴성모순례성당 성지순례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채계순 수녀)는 4월 14일 상반기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임원들의 성지순례 및 2차 중앙이사회를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운데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감곡 매괴성모순례성당에서 개최했다

제4차 영성세미나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는 회원들의 영성 강화를 위한 제4차 영성 세미나를 2013년 6월 15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문화와 영성' 을 주제로 전국 11개 교구 가톨릭간호사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해 문화와 영성연구소 김광엽 소장의 '미술과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67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영성' '영화와 영성' 그리고 기타리스트 고의석 선생의 '음악과 영성' 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다.

전국 가톨릭 간호대학생 연합 피정 개최



6월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 가톨릭간호대학생 연합피정이 개최됐다. '당신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전국 8개 교구에서 40여 명의 남녀 간호대학생들이 참석했다.

한국가톨릭나사업연합회 연합회 정기이사회 개최



한국가톨릭나사업연합회 2013년 정기 이사회가 5월 16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돈보스코청소년영성사목센터 부설교육관에서 개최됐다. 연합회 회장인 살레시오회 황복만 수사의 인사로 시작된 이번 정기 이사회는 2013년 사업 집행 계획 및 2013년 해외지원 내역, 운영회원 내규 개정안 등을 의제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은 예산안대로 집행하기로 승인했다.

소록도병원 제97주년 기념 및 제10회 전국 한센가족의 날 행사



5월 16일 국립소록도병원 중앙운동장에서 개원 제97년 기념 및 제10회 전국 한센가족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춘진 국회의원, 주승용 국회의원,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손심길 사무총장, 고흥 군수 등이 함께했다. 고흥군문화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비롯해 한센인 어머니 합창단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한센가족 릴레이 등 체육행사가 펼쳐졌다.

성라자로마을 자선음악회 '그대있음에'

5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라자로돕기회가 주최하고 성라자로마을이 주관하는 자선음악회 '그대 있음에'가 열렸다. 국내외 한센병 가족들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인 '그대 있음에'는 올해로 31회를 맞이했다. 특별히 조욱현 신부(한국가톨릭나사업연합회 담당사제 및 성라자로마을 원장)는 지난 12월 베트남에 있는 한센인촌을 방문하여 2012년 '그대 있음에' 음악회의 수익금을 전달하며 환우들의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과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기로 했다. 특별히 올해 음악회에는 연합회 사무국의 전 직원이 참석하여 성금을 전달했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68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안동교구 정착마을 교우 한마당잔치

5월 9일 안동교구 정착마을 교우들의 한마당잔치가 농은수련원에서 있었다. 이번 한마당잔치는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의 주례로 봉헌되는 미사로 시작되었으며 안동교구 정착마을 가족들과 다미안의 집 식구들이 함께 윷놀이와 명랑운동회를 벌이며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원목자 연수' 개최



한국가톨릭병원협회는 38개 회원병원 및 일반병원 원목사제 및 수도자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실시하는 '원목자 연수'를 6월 27~28일 경북 왜관 성 베네딕토 피정의 집에서 개최했다. 주된 프로그램으로 △자살예방 Gatekeeper 교육(이강숙 교수, 서울성모병원 예방의학과) △개인과 기관 그리고 영성(이건 팀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구현팀) △원목자의 영성(김평만 신부,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원목생활 그룹 나눔과 성무일도, 파견미사로 진행됐다.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점자 '성경' 추가 제작 지원 승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월 18일 열린 상임위원회의에서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가 지원을 신청한 점자 '성경' 추가 제작 보급 사업을 승인했다. 이는 협의회가 2006년부터 매년 주교회의 지원을 받아 펼쳐온 점자 전례서 발행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성경을 받지 못한 신자들과 새 신자들을 위하여 추가로 제작해 보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 신자들은 하느님 말씀에 보다 쉽게 다가가고 맛들임으로써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0차 정기총회 및 전국 회장단 피정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는 3월 12~13일 서울 한남동 꼰벤뚜알 피정의 집에서 각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회장단과 봉사자 등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정기총회 및 회장단 피정을 가졌다. 총회에서는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과 함께 새 회장단을 선출했다. 신임 회장으로 이준행 서울선교회 회장, 부회장으로 대구선교회 김덕수 회장, 인천선교회 장헌각 회장이 선출됐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69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전국 레지오 마리애 피정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는 5월 13~14일 평창 성필립보 생태마을에서 회원 및 봉사자 1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레지오 마리애 피정 행사를 가졌다. 첫날에는 레지오마리애 회합에 이어 김종인(마태오) 신부님의 강의가 있었고, 둘째 날은 한국평협이 주관하는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에 동참하자는 뜻으로 제천의 배론성지로 이동해 미사를 봉헌하고 성지를 탐방했다.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2013년 전국 성령대피정 성황리에 종료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회장 김현조)가 주관하는 2013년 전국 성령대피정이 6월 2일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 특별피정센터에서 '성령세례' 라는 주제로 열렸다. 전국 15개 교구가 주축이 되어 꽃동네, 성심원, 삼성산 등 특수기도 단체가 후원한 이번 대피정은 새롭게 대표담당사제로 선임된 부산교구 영성의 집 원장 김명선 신부와 오웅진 신부를 비롯한 사제들과 전국에서 온 3600명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열기와 은사를 체험하며 진행됐다.

김현조 회장은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라' 는 예수님의 당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께 순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령쇄신의 목적임을 강조했다.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상임위원회 개최, 정기총회 프로그램 확정



지난 3월 22~23일 광주대교구 교구청에서 한국가톨릭 여성단체 협의회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 각 교구의 여성 대표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4월에 부산교구에서 있을 제39차 정기총회 및 연수회의 프로그램과 일정을 확정했다.

제39차 정기총회 개최 20대 회장에 마산 김연숙 회장 선출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는 4월 10~12일 제39차 정기총회와 제31차 연수회를 개최했다. 부산교구 주관으로 성 분도 은혜의 집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부산교구장 황철수 주교의 발제강의와 부산신학대 최성욱 교수의 주제강의를 들었다. 윤리신학 전공인 최 신부는 '가정이 그리스도교 덕 수련의 장소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가정이 어느 곳보다도 먼저 복음삼덕을 실천하는 장소임을 일깨워 주셨다. 이번 정기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70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총회에서는 임기가 끝난 제19대 배순희 회장(대전교구)의 뒤를 이어 제20대 회장으로 김연숙(마산교구), 부회장으로 이종숙(수원교구), 감사로 고문희(광주대교구)와 한영순(제주교구)씨를 선임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회원 피정 및 제45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가톨릭의사협회가 주최하고 인천교구 가톨릭의사회가 주관한 2013년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피정 및 제45차 정기총회가 3월 16~17일 강화도 갑곶순교성지 50주년 기념 영성센터에서 개최됐다. 제45차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홍영선 교수(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를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2014년도 피정 및 총회는 4월 5~6일로 대전교구 가톨릭의사회에서 주관하기로 결정했다.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제44차 총회 개최

꾸르실료 한국협의회(회장 장주영, 담당사제 임덕일)는 3월 16~17일 마산교구 가톨릭교육관에서 제44차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신앙의 해 살기'를 2013년 목표로 정한 제44차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총회는 2013년 주요 사업으로 △각종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롤료 사용 통일 및 협의회 상품화 △제7차 세계대회 참가 △한국 꾸르실료 운동 세계에 알리기 △협의회 담당사제단 및 임원 교류 강화 등을 결의했다.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해외성소장학회 창립

4월 9일 염수정 안드레아 서울대교구장 집전으로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해외성소장학회 창립미사가 봉헌됐다. 해외성소장학회 창립식에서는 해외성소장학회 이사장(임덕일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담당사제) 및 이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함께 '해외성소장학회 회칙'과 '해외성소자 양성을 위한 기도'에 대한 인준식이 있었다.



'한국 꾸르실료 도입 46주년 기념미사'와 발상지 현판식'

5월 7일 서울 성수동성당에서 '한국 꾸르실료 도입 46주년 기념미사'와 '한국 꾸르실료 발상지 현판식'이 열렸다. 성수동성당은 한국 꾸르실료 운동의 발상지로 1967년 5월 4~7일 남성 제1차 꾸르실료가 개최된 곳이다. 기념미사와 현판식에는 임덕일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담당사제, 유도마스 성수동성당 주임신부, 성수동성당 출신 김순진 신부,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71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김한수 · 최용진 신부 등 꾸르실료 사제단 및 장주영 주간과 사무국 임원, 각 본당 꾸르실료 간사, 성수동성당 꾸르실리스따와 일반신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제19차 전국 주간단회의



꾸르실료 한국협의회는 5월 25일 제19차 전국 주간단회의를 개최하고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사업 및 결산과 각 교구 사업을 보고했다. 또한 의안 심의로 비다누에바에 관한 건과 2013년 추경예산 승인, 서울대교구가 사용하고 있는 '봉사자 형성교본' 공동 사용의 건, 11월에 호주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대회 참가준비에 대한 건을 논의했다. 제19차 주간단회의에는 각 교구 주간과 꾸르실료 담당사제, 한국협의회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M.B.W 한국공동체 추진봉사회
동계 전국 꼰비벤자 개최



2013년 M.B.W. 동계 전국꼰비벤자가 1월 8~10일 원주교구 횡성 도미니코수녀원 피정의 집에서 개최됐다. 전국 회원들이 모여 원주교구장 김지석 주교와 함께 '본당 · 교구 쇄신과정'을 체험했다. 2013년 M.B.W 하계 전국꼰비벤자는 8월 5~7일 대구대교구의 '한티 피정의 집'에서 변화의 영성 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평신도-내지 1904.6.302:55AM 페이지72 9600/233三綱五倫 가상 프린터12400DPI200LPIT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유용한 방법이 있을까요?





D = 하느님, P = 성부, S = 성령
is = 이시다, is not = 아니시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位格)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위격은 하나의 하느님 본성, 하나의 하느님 본질, 하나의 하느님 실체로서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세 위격 모두 영원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위격들은 서로 구별되십니다. 성부는 다른 원천을 가지지 않으시고, 성자는 오로지 성부로부터 출생하셨으며, 성령은 출산되지 않으시고 하나의 유일 원리이신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에는 인간의 필설이 무디고 어눌하기만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어디까지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절대 신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그러하기에 성 아우구스티노(354~430년) 같은 대학자도 이 신비가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래밭에 작은 구덩이를 하나 파 놓고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퍼 나르며 놀던 아이 하나가 한마디 말로 깨우쳐 주었습니다. "내가 이 조개껍질로 저 바닷물을 이 구덩이에 모두 옮겨 담을 수 있을지언정, 당신은 그 해답을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유명한 일화가 말해 주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이나 이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요 신비라는 점입니다. 성인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교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사물(상징)들을 이용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와 거의 비슷한 시기의 인물로서 '아일랜드의 사도'라 불리는 성 파트리치오(387?-467?년)는 토끼풀(또는 클로버)의 잎을 이용해서 하느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성인은 토끼풀 잎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면서 "이것은 잎사귀가 하나입니까 아니면 셋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하나이기도 하고 셋이기도 합니다."라고 대답하면, "그 점은 하느님도 마찬가지랍니다."라고 결론 삼아 말했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가리키는 표상으로는 토끼풀(클로버) 이파리 외에도 위의 그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석규
가톨릭출판사 문화총서 편집간사, CBCK교육위원회 위원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은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 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 발간과 관련해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3년 6월 현재)

소 속	이 름	세례명	이메일주소
서울평협	신동수	세라피나	sera006@hanmail.net
대전평협	이병인	미카엘	duck1995@hanmail.net
인천평협	김선우	다미아노	ksw7287@hanmail.net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wonju@pbc.co.kr
부산평협	공복자	유스티나	kongbog@hanmail.net
청주평협	정영수	프란치스코	cjjys2000@korea.kr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조은정	마리아	chomaria3@hanmail.net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한경숙	마리안나	kshan628@nate.com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강영숙	마리아 막달레나	magdalena57@hanmail.net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두현자	율리안나	doonim53@hanmil.net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pravda89@naver.comm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	김혜원	율리아나	yuliana88@hanmail.net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회장	송애련	젬마	ae4789@hanmail.net

공·지·사·항

- 2013년 2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의 알림 : 2013년 제2차 상임위원회의가 7월 12일(금)~13일(토) 1박 2일로 인천교구 50주년 기념 영성센터에서 개최됩니다.

- '평신도' 원고모집 : 한국평협이 개편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 평협과 회원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량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발 행 인 최홍준 파비아노
담당사제 손희송 베네딕토
발 행 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위원 김선동 루카, 배봉한 세례자 요한, 이가연 파우스티나, 이귀련 세실리아, 이재철 베네딕토, 이지연 마리아, 이창훈 알퐁소
편 집 장 김후남 파비올라
제 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 자 인 고미자(디자인투데이)

한국평협 100-809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02)777-2013, F. (02)778-7427 Mail. clak@catholic.or.kr 홈페이지 : http://clak.or.kr

¿',§¨£¥`□ 2013.7.10 10:54 AM ˜□□□`□2 G4^□•´ PS_IN 2750DPI 300LPI T

신앙생활 체험수기 공모

▷ 공모방법

1. 공모대상
   청소년, 청년, 일반 등 3개 부문

2. 공모내용
   - 신앙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
   -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나눈 실천
   -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오면서 겪었던 체험
   - 어렵게 성공한 선교 사례
   - 성령 안의 새 생활 사례
   - 자신의 삶을 바꾼 신앙체험 사례 등

3. 응모요령
   원고지 30매 이내로 자신의 체험을 과장 없이 솔직하게 작성하여
   이메일(clak@catholic.or.kr) 또는 우편(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한국평협 앞)으로 제출해야 하며, 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 유효.

4. 공모접수 마감일
   2013년 9월 9일
   ※ 문의 : 한국평협 사무국 ☎02-777-2013

5. 심사 및 발표
   - 결과발표 : 10월 18일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 시상식 : 11월 22일(금) 오후 5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입상작은 책으로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

6. 시상내용(부문별)
   - 사랑상 : 각 1명(상금 100만원)
   - 믿음상 : 각 2명(상금 각 50만원)
   - 희망상 : 각 10명(상금 각 5만원)

주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후원 :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PBC 평화방송·평화신문